

碩士學位請求論文

北韓 教育의 政治的 特性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高 性 俊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李 景 潤

1993年 8月

北韓 教育의 政治的 特性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高 性 俊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3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提出者 李 景 潤



李景潤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3年 7月 日

審査委員長 安 永 策
審査委員 梁 邦 柱
審査委員 高 性 俊



〈 초 록 〉

北韓 教育의 政治的 特性에 관한 研究

李 景 潤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指導教授 高 性 俊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있어서 教育의 一般目標은 主體思想으로 철저히 내면화된 革命的 人間을 계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政治教育은 教育의 기본으로 되어 있다. 이 점에 있어 教育을 기본적으로 비정치적(정치중립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南韓의 教育觀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理念·思想教育이 專門知識·技術教育보다 우선시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북한의 학교에서는 이념(주체사상) 教育을 강화하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김일성 개인에 대한 偶像化다.

북한의 初·中等學校 교과서도 이를 뒷받침하듯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인격과 폭넓은 知識을 제공하기 보다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忠誠을 강조하는 주제로 구성되어 강력한 思想教育의 도구인 것이다. 이는 북한의 教育이념과 목적을 구현하고 주요 教育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教育行政 體系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黨의 優位性은 教育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黨이 모든 教育정책을 일방적으로 수립함은 물론 그 집행까지도 적극 관여하여 지도·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教育行政體系는 철저한 중앙집권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體制改革을 要求하는 內外環境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경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經濟開放을 확대하고 經濟促進을 중시 여기는 전술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北韓의 「우리식 사회주의」다.

이러한 북한은 북한교육에 상당한 딜레마를 안겨주게 된다. 즉 北韓이 當面하고 있는 두가지의 課題-사회주의체제의 고수와 대외경제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를 教育이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경제발전을 위한 고급 산업인력을 계발하기 위해서도 實用主義的인 教育과 외부세계로부터의 先進知識 導入을 강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대변력에 대응해서는 사회주의체제 고수를 위한 政治教育을 오히려 강화할 수 밖에 없는 난처한 입장에 북한교육은 처해 있다.

向後 北韓教育의 方向을 展望해 보건데, 북한의 교육은 개방화의 흐름을 수용할 수 밖에 없고, 그 내용은 思想教育을 堅持하면서도 實用的이며 國際化 指向的으로 나가는 길 밖에 없을 것으로 豫想된다.



目 次

〈抄 錄〉

I. 序 論	1
1. 研究 目的	1
2. 研究範圍 및 研究方法	2
II. 北韓 教育의 理念과 實際	4
1. 北韓 教育의 理念	4
2. 北韓 教育의 內容	8
III. 北韓 教育行政體系의 構造와 機能	17
1. 北韓 教育行政의 本質	17
2. 北韓 教育行政體系의 基本構造	18
3. 北韓 教育行政 組織의 構造와 機能	26
IV. 內外環境의 變化와 北韓教育	41
1. 東아시아의 새 흐름	41
2. 北韓 經濟의 침체와 體制 正統性的 危機	44
3.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개와 教育	48
V. 結論：評價 및 展望	54
參考文獻	58
英文抄錄	63

表 目 次

〈表 1〉 人民學校 教育 課程	11
〈表 2〉 高等中學校 教育 課程	12
〈表 3〉 國語 教科書 主題別 單元 分布(인민학교)	14
〈表 4〉 國語 教科書 主題別 單元 分布(고등중학교)	14
〈表 5〉 音樂 教科書 主題別 分布(인민학교)	15
〈表 6〉 音樂 教科書 主題別 分布(고등중학교)	16

그 림 目 次

〈그림 1〉 北韓의 學校 教育體系	10
〈그림 2〉 北韓의 教育政策과 執行機構	19
〈그림 3〉 教育 行政에 關여한 黨의 統制體制	23
〈그림 4〉 北韓의 教育行政 執行過程	24
〈그림 5〉 北韓의 教育行政 組織('72.12 이전)	28
〈그림 6〉 北韓의 中央教育行政 組織('73년 개편전)	29
〈그림 7〉 北韓의 中央教育行政 組織('73년 개편 이후)	30
〈그림 8〉 北韓의 教育委員會 組織	32
〈그림 9〉 北韓 地方教育行政機關의 構成 體系	36
〈그림 10〉 北韓의 地方教育行政 組織 構造	37
〈그림 11〉 北韓의 學校行政 組織	40

I. 序 論

1. 研究 目的

마르크스는 일찍이 社會主義 建設을 위한 革命的 實踐은 대중을 프롤레타리아 의 식으로 내면화 시키는 꾸준한 教育에 의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왜냐 하면 教育은 社會構造에 속해 있어 기본적으로 階級主義的 성격에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소련에서 社會主義體制 建設을 주도한 스탈린은 「레닌주의 제문제」에서 사회주의 建設의 중요한 무기인 教育은 革命的 目標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手段으로 계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教育을 政治에 從屬시켰다. 그는 본질적으로 教育은 政治와 구분되어야 한다는 西方의 教育觀은 바로 觀念的이며, 그 주장 속에는 대중을 부르조아 方式으로 얽어 매려는 不純한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소련에서의 教育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가는데 적합한 의식을 형성하고 革命的인 새로운 人間을 開發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에 따라 教育理念과 政策 그리고 內容 등을 정하므로써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 형성에 焦點을 두어왔다. 따라서 소련에서의 教育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토대를 둔 政治·思想教育에 그 바탕을 두게 되었다.

소련의 소비에트화의 일환으로 수립된 北韓 政權은 教育問題를 기본적으로 소련의 모델을 토대로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北韓의 教育도 소련과 마찬가지로 政治·思想教育이 핵심을 이루게 되었고 공산주의적 인간의 형성을 목표로 전개되었다. 이렇게 출발한 北韓의 教育은 1960년 이후 점차 普遍的 共產主義 教育觀에서 벗어나 김일성 唯一體制에 忠誠하는 人間으로의 改造를 목표로 하여 시행되기에 이르렀으나 이 역시 정치사상교육이 주류를 이루는 것이었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北韓의 教育을 政治的인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인 특징을 도출

해 넘으로써 北韓의 教育을 바로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政治的인 측면이라 함은 보편적인 정치 교육과는 달리 교육이 갖는 현실 정치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정치적 특성을 말한다. 이러한 정치적 특성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겠지만 특히 교육 자체를 좌우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考察하고자 한다. 그것은 教育理念과 內容, 教育行政體系, 變化하는 社會에 對處하는 方式의 세 분야이다. 이 세 분야는 정치적 영향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분야라 생각한다.

2. 研究範圍 및 研究方法

本稿는 먼저 北韓 教育의 理念에 대하여 김일성의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체제」(1977년 9월 6일 로동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 발표)를 증점적으로 분석하여 그 政治的 性格을 考察하였다. 그와 함께 북한 교육의 내용으로써 學制와 단계별 學校 教育課程, 그리고 국어 교과서와 음악 교과서를 예로 하여 교과 내용을 考察하였다.

다음으로 北韓 教育의 行政體系에 나타난 政治的 性格을 살펴 보았다. 이 분야에서는 그 구조와 기능에서 부터 政策을 樹立·監督하는 教育행정 및 통제 체계 그리고 북한 교육의 이념과 내용의 연구는 이 분야의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것으로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전환기의 상황에 대처하여 수립된 북한의 체제 목표에 대한 분석과 그 목표 달성 수단으로써 교육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는 당면하고 있는 北韓 教育의 問題點을 도출해 내하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北韓 教育의 전 體系를 살피는 것은 너무나 방대한 범위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시기적으로 1945년 부터 지금에 이르는 40여년의 흐름을 전부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資料의 부족이 우선 研究를 制限하고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主體思想이 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에서 지금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北韓 教育의 政治的 特性을 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本 研究는 북한 관련

1·2차 資料들을 위주로 文獻 分析의 方法을 택하였다. 우선 기본 자료로 삼은 것은 김일성, 김정일의 演說文과 論文, 그리고 北韓 刊行物 등이다. 北韓의 1차 資料가 갖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외의 北韓 教育에 관한 研究 業績들을 比較·分析하여 보완해 보고자 했다.



II. 北韓 教育의 理念과 實際

1. 北韓 教育의 理念

북한의 教育에 대한 概念과 性格은 主體思想이 唯一思想體系로 確立되기 이전과 이후가 確연히 구분된다.¹⁾ 1969년 출간된 『教育學』에 의하면 教育에 대한 정의가 一般論적이다.

“교육이란 두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넓은 의미로 우리가 사람들을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은 후대들을 사회생활과 활동으로 준비시키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좁은 의미의 교육은 후대들을 사회생활과 활동으로 준비시킴에 있어서의 인식적 측면을 말한다. 즉 과학적 지식, 기능 및 숙련의 체계를 소유시키는 것”이다.²⁾

또한 1973년에 출간된 『朝鮮文化語 辭典』도 “教育은 人들을 智·德·體를 겸비한 社會的 人間으로 키우는 事業”이라고 정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教育의 목적은 一하는 全體를 爲하여라는 公산주의적 원칙을 실현하기 爲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 다시 말하면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고 社會와 人민을 爲하여, 로동계급을 爲하여 투쟁하는 公산주의자들을 키워내는 데 있다.”³⁾

그러나 主體思想이 北韓의 지배 イデオロ기로 굳어지면서 부터는 教育에 대한 定義가 다음과 같이 달라졌다.

- 1) 박문갑, “북한의 教育체계와 정치사회”, 김갑철 外(1990), 『북한학 개론』 문우사, p. 260.
- 2) 학우서방(1969), 『教育學』, 학우서방, p. 8. 박문갑, 상계서, 재인용.
- 3) 사회과학출판사(1973), 『조선문화어 사전』, 사회과학출판사, p. 78.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에 맞는 유일하게 정확한 사회주의 교육이론의 사상적 및 방법론적 기초는 주체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육이론을 주체사상에 기초한 교육이라 부르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⁴⁾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김일성-김정일 權力世襲의 正當性 構築을 위한 도구로서 교육 이념과 체제가 집대성 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社會主義 教育에 관한 테제』(1977년 9월 5일 제정·공포)다.⁵⁾

“교육테제”는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두 要塞 즉 공산주의의 思想的 要塞와 物質的 要塞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이 중요한데, 이 중에서도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이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는 데 바로 교육사업의 사명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

“공산주의 건설의 두 요새를 점령하는 데서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은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하여야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물질적 요새도 성과적으로 점령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자본주의로 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하여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공산주의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교육사업을 잘 하여야 한다. 교육사

- 4) 사회과학출판사(1975),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이론』, 사회과학출판사, p. 13.
- 5) 조선중앙년감에 의하면, 이 교육테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새롭게 발견된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가 고전적으로 정식화 되어 있으며 사회주의교육의 목적과 기본원리,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교육내용과 방법, 국가가 책임지고 전체인민을 공부시키는 사회주의교육제도,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법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 교육과 관련된 모든 원칙적 문제들이 전일적으로 체계화 되었다”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 북한 교육의 모든것은 이것에 의해서 지도·통제·규제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사(1988), 『조선중앙년감』, p. 198.

업을 잘 하여야 넓은 사회가 남겨 놓은 사상문화적 낙후성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교양 육성할 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다.”

“교육체제”에 나타나 있는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으로서 教育 理念과 目標은 北韓 住民을 革命化, 勞動階級化, 共產主義化 하여,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양성하는데 두고 있다.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다……

“사회주의교육이 자기의 목적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사람들을 공산주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깊은 과학지식과 건강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 원리에 입각한 「共產主義的 새 人間」이란 한 마디로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공산주의적 인텔리’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黨에 대한 충실성 교양⁶⁾을 기본적으로 하는 唯一思想 教養을 첫 자리에 놓고 교수 교양사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을 위대한 主體思想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공산주의적 인텔리로 믿음직하게 키우는 데 힘을 넣는다.’⁷⁾ 라고 하여 北韓의 教育이 根本的으로 主體思想을 확립하는 데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교육체제는 이러한 기본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社會主義 教育事業의 4가지 基本原則을 제시하고 있다.

6) 북한의 교육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두가지 개념, 즉 教養과 教育이란 확연히 구별되는 내용이다. 教養은 특정 이데올로기(혁명전통과 주체사상)를 주입시키는 일종의 教化(inculcation), 주형화(modeling)이고, 教育은 일반적 지식 습득을 위한 教授-學習의 뜻이다.

7) 조선중앙통신사(1980), 「조선중앙년감」, 조선중앙통신사, p. 154.

- (1) 黨性과 勞動階級性의 原則 : 교육에서 당성·로동계급성을 구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과도기인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계급투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생활문화와 생산문화”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 (2) 主體確立의 原則 :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 나라의 것을 기본으로 하여 가르치며, 사람들이 자기의 것에 정통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 (3) 敎育과 革命 實踐과의 結合 : 교육과 혁명 실천을 결합하여야 한다. 교육은 실천의 요구로부터 발생하였으며 실천을 위하여 복무한다. 실천과 결합된 교육만이 자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교육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 실천과 결합되어야 한다.
- (4) 敎育의 國家責任制 : 국가가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교육은 사회주의 국가의 사상문화 교양의 무기이다. 사회주의 국가는 교육사업을 통하여 문화교양자적 기능을 수행한다.”⁸⁾

1980년대에 들어와서 北韓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심화하여 敎育의 目標을 人間改造에 두고,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우상 숭배를 극대화하여 김정일의 권력 승계를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人間改造事業의 目的, 內容, 方法이 종합되어 정리된 것이 위대한 主體思想叢書 제6권으로 1985년에 출간된 「人間改造 理論」이다. 북한에서는 人間改造의 本質에 대해 “人間改造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 사업”이라고 규정해 놓고 “人間改造은 본질에 있어 思想改造이며 공산주의적 인간을 키우는 데 기본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정일은 “人間改造 사업에 先次的인 주의를 돌리지 않고서는 自然改造事業과 社會改造事業을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없으며 革命과 建設을 높은 속도로 전진시킬 수 없

8) 요약은 이종욱, “북한의 교육정책과 행정 및 대학교육”, 고려대평화연구소 편 (1990), 「북한교육의 조명」, 법문사, p. 15.

다”는 것이다.⁹⁾ 인간개조의 내용의 기본은 主體思想 敎養이며 黨政策 敎養과 革命傳統 敎養, 階級 敎養, 集團主義 敎養 등이다. 또한 인간개조사업은 무엇보다 사상개조이며 “思想戰에서는 수령의 敎示, 黨의 의도대로 대중을 무장시키는 것이 첫 공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개조 이론에 의하면 참다운 공산주의 혁명가는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세계관으로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여 人民을 김일성의 臣民으로 改造하는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북한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黨에 대한 충실성 교양을 기본적으로 하는 唯一思想 敎養을 첫 자리에 놓고 교수 교양사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공산주의적 인텔리로 믿음직하게 키우는 데 힘을 넣는다.”¹⁰⁾ 라고 하여 그들의 교육이 근본적으로 主體思想을 확립하는 데 있음을 밝히고 있다.

2. 北韓 敎育의 內容

1) 學制와 敎育課程

北韓 正規敎育의 基本 學制는 4-6-4(6) 제로서 人民學校 4년, 高等中學校 6년, 大學은 4-6년으로 되어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北韓의 의무교육은 취학전 1년(유치원 높은반)을 포함하여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을 모두 합쳐 11년제이다. 그 이상은 고등교육과정이다.

北韓에서의 의무교육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全民敎育’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¹¹⁾ 北韓의 의무교육은 1950년 9월부터 초등 의무교육제를 실시키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1953년부터 4년제 인민학교에서 실시되어 오다

9) 사회과학출판사편(1985), 『인간개조 이론』, 사회과학출판사, pp. 1-2. 민족통일 통일연구원(1992), 『북한주민의 인성 연구』, p. 55. 재인용.

10) 조선중앙통신사(1980), 전제서, p. 154.

11) 통일원(1992), 『'92북한개요』, 통일원, p. 328.

가 1958년에 3년제 중등교육 까지 확대하고 1967년에는 전반적 9년제 技術義務教育制(중학교를 5년제로 하고, 그 후반 2년을 技術교육으로 하는 제도)로 전환하였다. 1970년에는 10년제, 1975년 9월부터는 1년동안의 學校前(유치원 높은반 1년) 義務教育과 10년동안의 學校義務教育을 포함한 全般的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北韓에서 高等教育機關이 문을 연 것은 1946년 10월이며, 1946년 조직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같은 해 10월 1일 「김일성 종합대학」을 평양에 설치한 것이 시초이다.¹²⁾ 休戰 直後에는 정치·경제분야 대학들이 신설되기 시작했고, 1957년 부터 초·중등교원 양성을 위한 敎員大學과 師範大學이 대폭 신설되었다. 1960년 8월에는 「일하면서 배우는」 工場大學·夜間大學 설립이 결정되었고 1978년 이후에는 通信大學과 專門學校 등이 증설되기 시작했다.

현재 북한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2개의 종합대학을 위시하여 280여개의 전문대학이 있고 이외에 체육 및 예술전문학교와 기술계 등의 전문학교가 600여개가 있다.

북한의 교육은 共產主義 建設이라는 政治的 目的에 從屬되어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북한은 초기교육에서 평생교육까지 집단주의에서 반복주의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洗腦的 手段을 동원하고 있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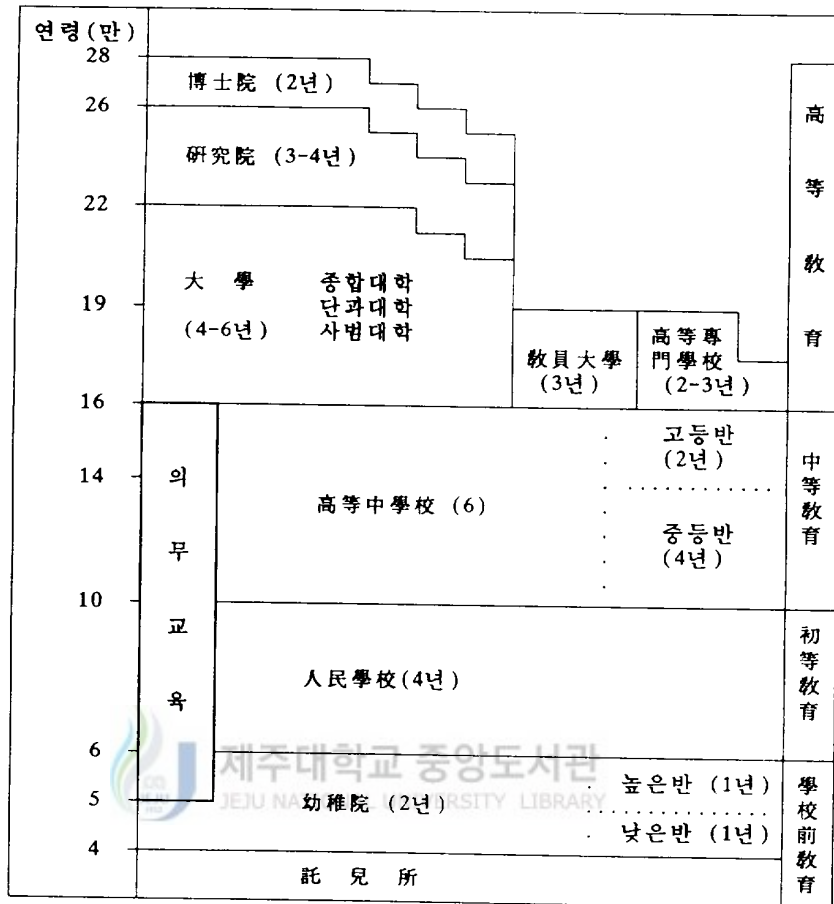
「社會主義 教育에 관한 테제」는 '學校前 教育'에 대한 개념과 그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학교 전 교육은 사람들에 대한 교육 교양의 첫 공정이다…… 학교 전 교육의 중심은 학교교육의 기초를 닦는 데 두어야 한다. 유치원에서는 혁명사상 교양과 도덕 교양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적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잘하여야 하며…… 유치원 교육은 어린이들의 심리적 특성에 맞게 직관물과 실물을 통한 수업, 노래와

12) 상계서, pp. 330~331.

13) 김양수(1983), “남북한 정치사상교육의 실태분석”, 석사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p. 4.

〈그림 1〉北韓의 學校 教育體系



자료 : 김동규(1992), "북한의 교육제도", 교육부편, 『교육월보』 통권 제123호, p. 59.

춤, 놀이를 통한 교양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잘 배합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幼稚園에서는 주로 쉬운 한글 쓰기와 노래(혁명가요), 춤, 전쟁놀이, 셈하기 등 이미 탁아소에서 교육 받은 내용을 생활관습화하여 인민학교 교육을 준비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높은 반(1년)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김일성 원수 어린시절 이야기' '共産主義 道德'을 공부하는 등 연간 1,360시간의 교육을 받고 있다.¹⁴⁾

북한의 어린이들은 2년 과정의 유치원을 마치고 만 6세가 되면 人民學校에 입학하게 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년제의 人民學校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

〈표 1〉 人民學校 敎育課程

구분 학년		주 당 수 업 시 간 수							
		1 학 년		2 학 년		3 학 년		4 학 년	
		1	2	1	2	1	2	1	2
과목명	총 시간								
김일성 어린시절	152	1	1	1	1	1	1	1	1
김정일 어린시절	152	1	1	1	1	1	1	1	1
국 어	1,142	8	8	8	8	7	7	7	7
외 국 어	37							1	1
수 학	834	5	5	5	5	6	6	6	6
자 연	222					3	3	3	3
체 육	304	2	2	2	2	2	2	2	2
음 악	304	2	2	2	2	2	2	2	2
도화·공작	304	2	2	2	2	2	2	2	2
계	3,451	21	21	21	21	24	24	25	25

자료 : 통일원(1992), 『통일속보』, 제92-9호, (1992. 9. 24),

14) 김경웅(1990), "정치사상교육의 이론과 구조적 특징", 『북한』 1990년 5월호, 북한연구소, p. 59.

성 원수님 어린시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어린시절 이야기」라는 理念 教育的 學科目 이외에도 「국어」과에서도 거의가 김일성의 이야기와 관계되는 것이다. 그외에 「외국어」, 「수학」 등 9개 과목에 대해 총 3,451시간 중 1,436시간, 즉 전체의 42%를 김일성 우상화 내지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주입 교육에 담당하고 있다.

〈표 2〉 高等中學校 教育課程

구분 과목명	총시간	주 당 수 업 시 간 수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5 학년	6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고등중학교는 중등과정 4년, 고등과정 2년 등 6년제로서 「수학」 등 총 21개 과목에 대하여 6,742 시간의 교육이 실시 됨 o 수업은 하루에 6시간, 토요일은 3학년까지는 2시간, 4 - 6학년은 4시간을 넘지 않게 실시하고 있으며, 수업일수는 1학기는 16주, 2학기는 22주임. 							
김일성혁명활동	150	2	1	1			
김일성혁명력사	195				2	2	3
김정일혁명활동	112	2	1	1			
김정일혁명력사	110				1	1	1
현행 당 정책	102				(34)	(34)	(34)
국어문학	769	5	4/5	4	4	3	2
한글문어	251	2	2/1	1	1	1	1
외국어	591	3	3	3	3	3	3
역사	280		1	2	2	2	2
지리	344	2	2	2	2	2	
수리학	1,283	7	7	6	6	6	7
화학	549		2	3	4	4	5
생물	381			2	3	4	4
생체	410		3	2	2	3	3
체육	309	2	2	2	1	1	1
음악	143	1	1	1	1		
미술	76	1	1				
녀학생실습(녀)	210	1	1	1	1	1	1
기계조작실습(남)	197						
제도실습:전자기계선택과정	60 120 100				1 (36)	1 (50) (26)	 (34) (74)
계	6,742	27	31	31	34	34	34

자료: 통일원(1992), 「통일속보」, 제92-9호, (1992. 9. 24).

또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高等中學校는 중등과정 4년, 고등과정 2년동안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혁명력사 및 활동」,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력사 및 활동」 「현행 당정책」, 「국어문학」, 「수학」 등 21개 과목에 대해 총 6,742시간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즉 高等中學校 6년간의 총 6,742시간에서 1,338시간에 달하는 20%를 김일성 父子의 우상화 내지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주입 교육에 배당하고 있다.

이 외에 모든 학생들은 방학을 이용하여 김일성·김정일의 革命戰跡地·革命史跡地들에 대한 답사가 행하여 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北韓의 敎育은 人民學校, 高等中學校의 敎育課程案을 검토해 보면 思想敎育에 대한 편중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學校敎育을 통해 보다 세련되고 발전된 사회과정을 밟아간다. 北韓은 이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성장 과정을 획일화하기 위해 일반적인 사회교육과는 상관없이 政治思想敎育에 敎育의 重點을 둬으로써 인간을 無力化 시키고 있다.

2) 敎科書와 思想敎育

北韓 敎育의 政治的 성격은 敎과서의 내용을 파악해 보면 잘 나타난다. 최근 국토 통일원이 발표한 北韓 敎科書에 대한 分析을 중심으로 思想敎育 內容을 살펴보면¹⁵⁾ 각급 학교 敎科書 내용에 있어 共通的인 特徵은 「共產主義的 새 人間」양성이라는 敎育 目標를 달성한다는 명분하에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主題가 主를 이루고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민학교(1~4년) 國語 敎科書는 총 161개 단원으로 구성되어있는 데, 단원의 주제 영역별 분포를 보면 思想敎育과 관련된 주제가 77% (108개 단원)이며 국어 본래의 영역인 문법, 어휘, 문장 등 언어생활에 관한 단원의 비중은 33% (53개 단원)이다. 思想敎育과 관련된 108개 단원 가운데 김일성-김정일

15) 통일원(1992), “북한교과서 분석”, 『통일속보』, 제92-9호(1992.9.24)

〈표 3〉 國語 教科書 主題別 單元 分布(인민학교)

()안은 %

구 분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계
김일성 이상화	6 (19)	9 (18)	9 (23)	8 (20)	32 (20)
김정일 이상화	6 (19)	9 (18)	5 (12)	5 (12)	25 (16)
김일성 가계 이상화		3 (6)	2 (5)	2 (5)	7 (4)
대남, 대미·일 적개심 고취	3 (10)	5 (10)	2 (5)	3 (8)	13 (8)
공산주의 도덕 교양	5 (16)	8 (16)	9 (23)	9 (23)	31 (19)
문법·낱말 등 언어생활	11 (36)	16 (32)	13 (32)	13 (32)	53 (33)
계	31	50	40	40	161

자료 : 통일원(1992), 「통일속보」, 제92-9호, (1992. 9. 24).

〈표 4〉 國語 教科書 主題別 單元 分布(고등중학교)

()안은 %

구 분	1 학년	2 학년	3 학년	계
김일성 이상화	5 (17)	5 (19)	6 (33)	16 (22)
김정일 이상화	3 (10)	3 (12)	3 (16)	9 (12)
김일성 이상화 가계	2 (6)	3 (12)	2 (10)	7 (9)
대남, 대미·일 적개심 고취	5 (17)	4 (15)	1 (5)	10 (13)
공산주의 도덕 교양	6 (20)	4 (15)	2 (10)	12 (16)
문법·낱말 등 언어생활	9 (30)	7 (27)	5 (26)	21 (28)
계	30	26	19	75

자료 : 통일원(1992), 「통일속보」, 제92-9호, (1992. 9. 24).

우상화를 주제로 한 단원은 64개로 6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敵愾心과 관련된 주제도 12%이다.

<표 4>에서 보듯이 高等中學校(1~3학년) 國語 教科書는 총 75개의 단원 중 思想 敎育과 관련된 단원이 54개로, 인민학교의 67%보다 더 많은 72%나 되고 있다. 이 54개 단원 가운데 김일성과 그 가계 우상화를 주제로 한 단원은 32개로 인민학교와 마찬가지로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적개심과 관련된 주제는 18.5%나 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음악 교과서의 분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표 5>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音樂 教科書에 실린 노래 가운데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관련이 인민학교의 경우 57%, 고등중학교는 47%가 되며 비정치적인 노래들은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다같이 17%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적개심 관련 주제는 國語 教科書에 비해 비율이 더 높다.

<표 5> 音樂 教科書 主題別 分布(인민학교)

()안은 %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김일성 우상화	6 (24)	11 (38)	12 (41)	12 (37)	41 (36)
김정일 우상화	6 (24)	6 (21)	4 (14)	4 (12)	20 (17)
김일성가계 우상화	1 (4)	1 (4)	1 (4)	2 (7)	5 (4)
적개심 고취	5 (20)	3 (10)	4 (14)	5 (16)	17 (15)
사회주의 우월성	2 (8)	3 (10)	3 (10)	5 (16)	13 (11)
기 타	5 (20)	5 (17)	5 (17)	4 (12)	19 (17)
계	25	29	29	32	115

자료 : 통일원(1992), 『통일속보』, 제92-9호, (1992. 9. 24).

〈표 6〉 音樂敎科書 主題別 分布(고등중학교)

()안은 %

주 제 \ 학 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김일성 이상화	5 (36)	6 (44)	3 (23)	4 (31)	18 (33)
김정일 이상화	2 (14)	1 (7)	2 (15)	1 (8)	6 (10)
김일성가계 이상화		1 (7)		1 (8)	2 (4)
적개심 고취	1 (7)	2 (14)	4 (31)	2 (15)	9 (17)
사회주의 우월성	4 (29)	2 (14)	2 (15)	2 (15)	10 (19)
기 타	2 (14)	2 (14)	2 (16)	3 (23)	9 (17)
계	14	14	13	13	54

자료 : 통일원 (1992), 「통일속보」, 제92-9호, (1992. 9. 24).



Ⅲ. 北韓 教育 行政 體系의 構造와 機能

1. 北韓 教育 行政의 本質

『共產主義의 새 人間』 양성을 근본 목표로 하는 北韓의 教育은 한 마디로 '정치우선론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政治優先論'은 教育의 이념과 목표달성을 위한 手段으로의 의미를 갖는 教育行政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밖에 없다. 한편, 김일성은 "教育行政事業에서 중점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문제는 教育의 思想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¹⁶⁾라고 하여 教育행정 of 主임무가 思想教育 강화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北韓의 주장을 고려할 때, 北韓의 教育行政은 정치집단인 黨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가능하며, 行政事業도 사상성을 중심 문제로 삼고 있어 모든 사업에서 정치성을 우선한다는 '政治優先論'에 입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⁷⁾ 이러한 教育행정의 본질에서 볼 때, 北韓의 각 教育행정기관들은 思想敎養機關에 다름 아니다.

『대학사업에 대한 教育행정지도 기관의 지도 이론과 방법』에 의하면,¹⁸⁾ "教育行政機關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思想敎養機關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은 社會主義·共產主義 건설과정의 계급적 본질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위대한 教育사상이다." 또한 "만일 教育행정기관을 사상교양기관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행정기관으로 보면서 教育행정기관이 思想敎養사업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부르조아思想의 영향을 받아 사상적으로 병들게 되고 革命意識이 마비되어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킬 수 없게 되며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16) 김일성(1973), 『사회주의 교육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p. 202.

17) 장희동(1991), "남북한 教育행정조직의 비교연구", 석사논문, 성균관대학교 教育대학원, pp. 12~13.

18) 김준건(1986), 『대학사업에 대한 教育행정기관의 지도이론과 방법』, 평양: 教育도서출판사, pp. 3~4.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게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北韓은 教育行政機關을 思想教養機關으로 보며, 또 이런 연장선상에서 교육행정기관을 국가의 文化教養者的 機能을 수행하는 한개의 기관으로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중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힘 있는 무기로 간주한다. 즉, “教育行政機關이 국가의 문화교양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무기로 되는 것은, 교육행정기관이 大學의 教授 教養事業에 대한 지도를 통하여 새로운 사회주의적 문화를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¹⁹⁾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教育行政機關이 우선 대학의 교수 교양지도를 잘하여 모든 대학생들을 높은 문화기술 수준을 가진 共產主義的 革命人材로 키우면, 대학을 거쳐 사회에 배출된 대학졸업생들이 사회 각분야의 지도자가 되어 높은 문화기술을 널리 보급할 수 있다는 말이다.²⁰⁾

2. 北韓 教育 行政의 基本 構造

북한의 教育行政體系는 제도적으로 2分化 되어 있다. 정책의 수립·지도·감독 및 평가를 담당하는 기구와 그것을 집행하는 기구이다. 전자가 黨이라면, 후자는 行政機關이라 할 수 있다.

1) 政策 樹立 機構로서의 黨

북한의 경우 모든 정책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勞動黨에 의해서 수립된다. 북한에서 교육에 관한 綜合指針書로 제시되고 있는 『社會主義 教育에 관한 테제』(1977.9.5 제정·공포)에서 밝힌 勞動黨의 역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黨은 혁명과 건설을 첫날부터 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왔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당의 의도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교육사업 전반을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조직진행하여야 하며 교수를 당 정책화 하여야 한다.

19) 김준건(1986), 상계서, p. 8.

20) 장희동(1991), 전계논문, p.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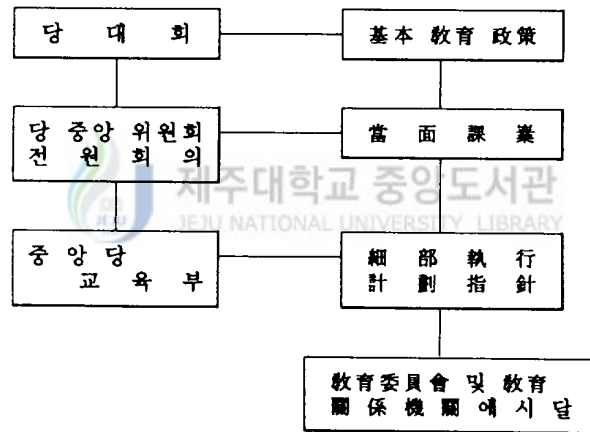
사회주의 교육은 당의 지도밑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교육 사업에서 당의 의도와 정책적 요구를 관철할 수 없다. 당의 령도를 강화하여 교육 사업에서 '자유주의'와 무규률성을 없애고 모든 교수 교양사업을 당의 방침대로 진행하는 혁명적 규률을 세워야 한다.

이처럼 모든 정책은 勞動黨의 最高指導機關이고 의결기관인 黨大會에서 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基本 教育政策은 黨大會에서 마련되고 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면 과업으로 제시된다. 이것은 다시 중앙당 教育部가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비서국의 인준을 받아 해당 교육행정기관에 지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북한의 교육정책과 집행기구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北韓의 教育 政策과 執行 機構



자료 : 극동문제연구소 (1983), 「북한총람」, 극동문제연구소, p. 1269.

그러나 黨大會는 북한의 정권수립 이후 오늘날까지 단 여섯 차례 개최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규정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 있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하

도록 되어 있는 黨 中央委員會 全員會議(정원 169명)에서 거의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¹⁾ 그리고 黨 中央委員會 산하의 조직인 政治局(상무위원회 위원 16명)²²⁾과 그 산하에 있는 비서국(비서 10명)이 실제적인 權力行事와 政策立案을 주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중 교육정책에 관해서는 비서국 산하의 22개 전문부서의 하나인 과학 및 교육부에서 입안하여 비서국을 거쳐 정치국의 상무위원회에 상정 심의·결정되어 형식상 黨 中央委員會 全員會議 의결을 거쳐 확정·공포된다.

물론 북한에서 教育政策 樹立의 전적으로 黨에 의해서만 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 하면 교육정책이 제시되는 방식을 보면 모든 정책이 黨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教育政策이 제시되는 방식은 그 형식면에서 보면 대체로 5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²³⁾

첫째는 김일성의 敎示이다. 그의 지시나 명령은 곧 법이요 그의 연설이나 말은 곧 黨令과 같다. 즉, 김일성의 교시가 바로 교육정책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고, 연설, 대화 등의 형식으로 발표된 김일성의 교시 중 교육사업과 관련된 것은 곧 교육정책의 표현이요 구체적인 교육정책의 결정을 의미한다.

둘째로, 法令을 들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되는 憲法을 비롯한 각종 法令에도 교육정책이 제시되어 있다.²⁴⁾

21) 박용현, "교육제도와 행정", 김형찬편(1990), 「북한의 교육」, 을유문화사, pp. 124~125.

22) 정치국은 당의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 사실상의 최고핵심부서이다. 정치국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중앙위원회의의 명의로 당의 모든 사업을 지도하도록 되어 있다. 정치국은 현재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출된 상무위원(3명), 정회원(14명), 후보위원(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로동당 규약 제25조)

23) 송종숙(1990), "북한의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의 사상적 배경과 실상", 석사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pp. 42~46.

24) 교육관계 법령의 사례로는 (1)「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 실시에 관한 법령」(1949. 9. 10), (2)「전반적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여 기술의무교육제 실시를 준비할 데 대하여」(1958. 10. 2), (3)「어린이 보육교양법」(1976. 4. 29)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로, 政務院의 決定書를 들 수 있다. 정무원의 결정서는 총리가 서명하고 교육 위원회위원장이 부서하는 형식을 취하며, 최근에는 主席이 서명으로 공포되고 있다.²⁵⁾

네째로, 1972년 이전에는 教育相의 서명하는 教育省令 중에서도 구체적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²⁶⁾

끝으로 김정일의 書翰 및 談話를 들 수 있다. 김정일의 후계자로 공식화된 최근에는 북한교육이 지향해야 할 중심과업을 제시한 김정일의 교육 관련 서한을 기초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상과 같은 教育政策 表現이 다양한 창구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政策의 樹立은 勞動黨에 의해서 행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김일성·김정일을 비롯한 勞動黨의 핵심세력이 모든 요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北韓 教育政策의 決定過程은 로동당 조직을 통하여 중앙집권적으로 정책 방향이 결정되며, 김일성의 敎示는 대체적인 정책 방향을 명시하고 보다 구체화하는 것은 중앙인민위원회의 정령·결정·지시 등이며, 보다 중요하고 기본적인 제도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은 형식상 최고인민회의의 추인을 받아 법령으로 공포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정책 수립의 기구로서 勞動黨은 정책의 집행과정에도 적극 관여하여 指導·監督·統制 및 評價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社會主義教育에 관한 테제」에서도 보면, 黨組織들은 교육행정기관들의 사업을 잘 지도하여야 한다. 黨의 教育政策은 행정기관들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집행된다. 당조직들은 교육행정

25) 예컨대 (1) 「학술용어 및 실용한자 사용에 관한 결정서」(1949. 2. 5 내각결정 제7호), (2) 「전반적 초등무교육제 실시와 법령 실시에 관한 결정서」(1950. 1. 11. 내각결정 제6호), (3) 「학생들의 수업료를 전반적으로 폐지할 데 관하여」(1959. 3. 2. 내각결정 제18호) 등을 들 수 있다.

26) 예를 들면 (1) 「인민학교에 관한 규정」(1950. 4. 8. 교육성령 제4호), (2) 「교학 및 시학에 관한 규정」(1950. 4. 13 교육성령 제7호) 등을 들 수 있다.

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黨의 교육정책을 관철하며 교육사업에 대한 國家的 指導를 강화하여야 한다.”²⁷⁾라고 하여 黨에서 교육행정기관을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컨대 政策이 執行過程은 지방당의 교육부가 統制·監督·檢閱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학교내에서 조차도 學校 黨委員會가 있어 지도와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 教育行政은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로동당의 통제하에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교육부문에 대한 黨의 統制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 것은 교육사업에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입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사회주의교육의 로동계급적 성격을 고수하고 교육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²⁸⁾

북한의 교육행정은 교육을 共產主義 敎養과 공산주의 革命을 위한 기본수단으로 간주하는 “로당당의 기본노선”에 의해 결정, 통제되며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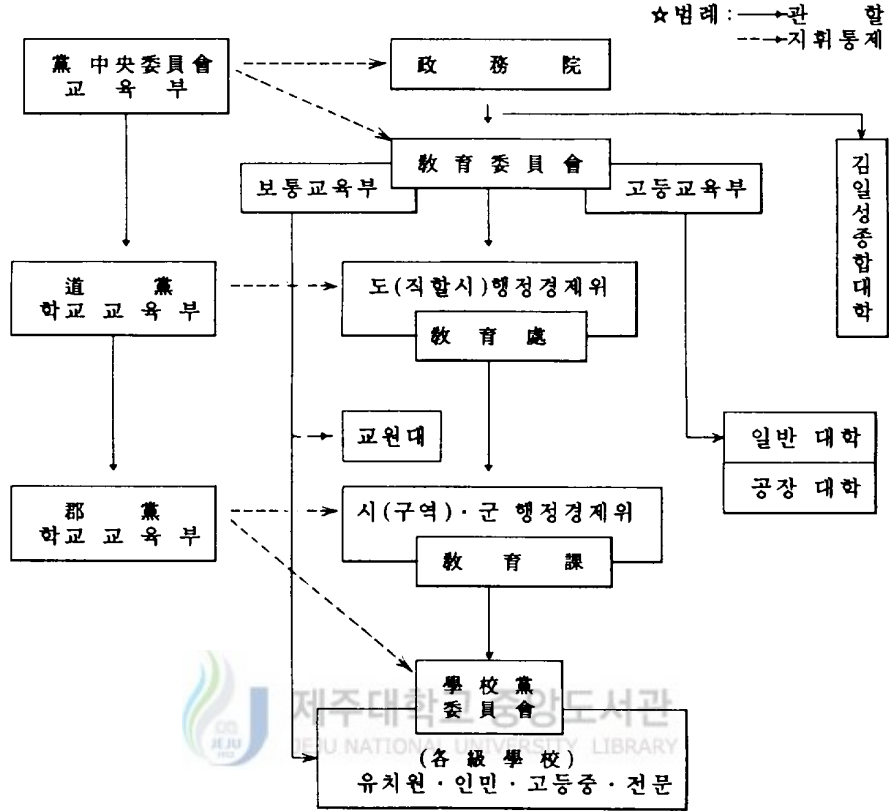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北韓의 全般的 教育行政體系는 勞動黨의 완전 통제와 감독하에 놓여 있다. 教育政策의 樹立과 執行의 총괄적 指導·監督은 勞動黨 중앙위원회 비서국 산하의 교육부에서 관장한다. (초기에는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 80년대 말까지는 중앙위 “과학교육부”가 관할함) 그리고 각 道黨과 郡黨은 해당지역 교육행정을 관장하며, 그 지역의 각급 학교를 직접 지휘·감독한다.

북한 교육행정에 관여한 당의 통제관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27) 김일성(1973),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p.200.

28) 김정일(1984),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p.31~32.

〈그림 3〉 北韓 教育 行政에 關여한 黨의 統制 體系



자료 : 통일연수원(1992), 『민주통일론』, 통일연수원, P. 143.

2) 政策 執行 機構로서 行政 機關

教育에 關한 行政적 집행기관은 教育委員會²⁹⁾이다. 教育委員會는 정무원에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부서로서 각급 지방행정경제위원회의 教育處 및 教育課를 지도한다. 政務院은 黨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하에 있고 중앙당 교육부는 각급 지방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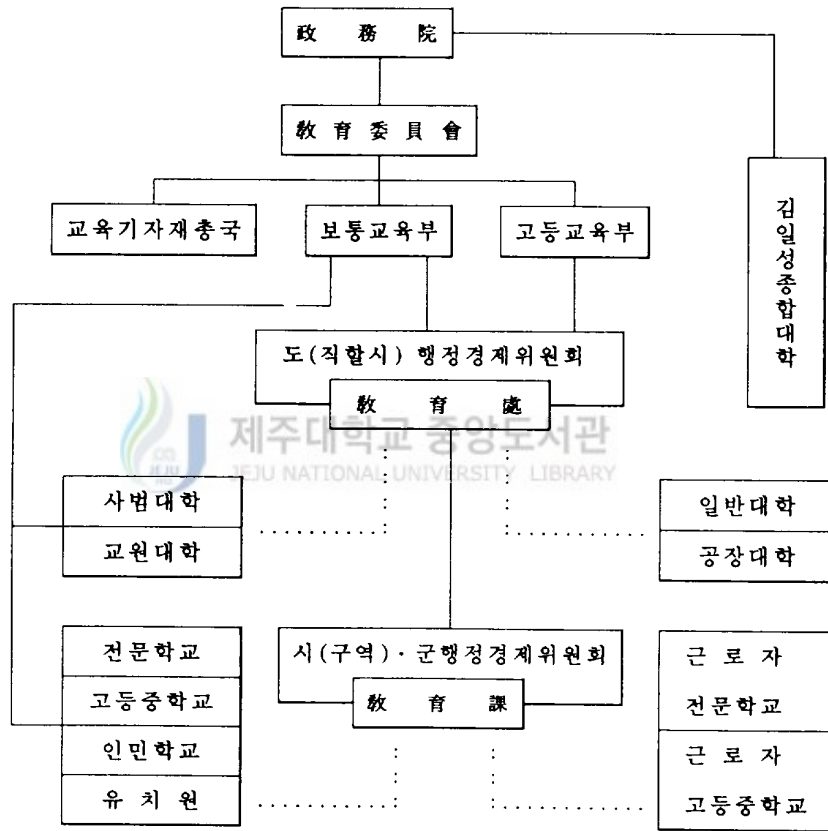
29) 북한의 교육위원회는 남한의 교육부에 해당되는 중앙의 합의제 교육행정기관임.

의 교육부를 지도하며 각급 지방당위원회는 해당 지역 안의 집행기관인 행정경제위원회에 黨적 統制를 가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북한의 교육행정집행과정을 도시화하면 <그림 4>와 같다.

「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教育政策의 方向을 결정하면 정치국 밑에 있는 비서국의 「교육부」에서 指導·監督하며, 이러한 정책 기본 방침에 의해 행정부인

<그림 4>北韓의 教育 行政 執行 過程



자료 : 임중혁 (1989), "북한의 교육", 「민주통일론」,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p. 169.

정무원의 교육위원회에서 구체화 하여 집행하는데, 직접적인 집행은 지방교육행정을 전담하는 市·道(직할시) 地方行政經濟委員會의 敎育處와 시·군 지방행정경제 위원회의 敎育課에서 이루어진다.³⁰⁾

한편, 북한은 敎育行政機關의 任務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예컨대, 「대학 사업에 대한 교육행정기관의 지도 이론과 방법」³¹⁾에서는 그 임무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내세우고 있다.³²⁾

첫째, “김일성과 김정일의 指示 및 黨政策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다.” 즉, 이 책은 “교육행정기관 앞에 나서고 있는 기본 임무는 위대한 수령님의 敎示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말씀, 그 구현인 黨政策을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다.”³³⁾라고 밝히고 있다.

둘째, 敎育綱領의 作成과 그 執行에 대한 指導이다. “敎育行政機關에서는 敎育강령을 철저히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 원리에 기초하여 만들어야 한다……敎育강령을 잘 만드는 것과 함께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指導·統制를 하는 것은 교육행정기관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³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敎育綱領을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 원리에 기초하여 만든다는 것은 혁명의 요구와 혁명에 도움이 되게끔 만든다는 의미이다. 즉 이론과 실천, 敎育과 생산 노동을 밀접히 결합시켜, 革命實踐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위 ‘산지식’을 위주로 敎育강령을 만들도록 敎育行政機關들이 指導·統制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敎育綱領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원들로 하여금 강의안을 잘 작성하도록 강조하고, 그 檢閱을 強化할 것은 물론 시범수업을 먼저하고 토론을 한 후에 강의에 들어가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30) 고려대평화연구소편(1990), 『북한교육의 조명』, 법문사, p. 276.

31) 김준건(1986), 전제서, pp. 10~42.

32) 장희동(1991), 전제논문, pp. 1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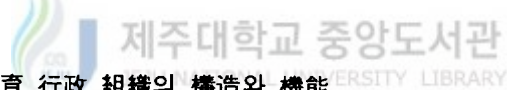
33) 상계논문, p. 10.

34) 장희동(1991), 전제논문, pp. 15~20.

셋째, 科學研究事業을 強化하는 것으로, “教育行政機關은 人民經濟의 主體化·現代化·科學化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科學技術적 문제들과 현대 科學技術발전 추세에 맞게 科學분야를 적극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³⁵⁾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북한이 절박하게 처하고 있는 經濟難·科學技術低下 등의 국가적 과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教育條件의 保障이다. 즉 “사회에 모든 성원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는 사회주의교육의 물질적 수요가 대단히 방대하며…… 이러한 요구는 教育행정기관이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실현될 수 있다.”³⁶⁾고 밝히고 있음을 본다.

이상에서는 北韓의 教育行政體系의 基本構造를 정책 수립 기구로서의 黨과 정책 집행 기관으로서의 행정기관으로 대별하여 살펴 보았거니와, 요컨대 北韓의 教育행정 체계는 다른 국가 행정 일반과 마찬가지로 매우 中央執權의이며, 黨에 의한 기관의 統制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黨이 모든 제반 教育정책을 수립한다면, 行政機關은 黨의 政策을 執行하는 機關에 불과하다. 나아가 지방의 하부 행정조직들은 黨과 상급 행정 기관들로부터 指示와 監督을 받는 2중·3중의 統制하에 놓여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3. 北韓 教育 行政 組織의 構造와 機能

1) 教育 行政 組織의 變遷

(1) 中央 教育 行政 組織

北韓의 中央 教育 行政 組織은 공산당의 教育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변천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³⁷⁾

35) 상계서, p. 40.

36) 상계서, p. 42.

37) 북한의 教育정책의 변천과정을 教育이념적 측면과 관련하여 시기별로 간단히 요약키로 하면, 먼저 김일성은 1961년 9월 노동당 제4차대회의 보고를 통해 “교육분야

1948년 9월 9일의 소위 '인민공화국'이 선포되기 전에는 교육행정은 일본식과 소련식의 절충형이었는데, 교육을 관장하는 중앙행정부서의 명칭은 '教育局'이고 道와 郡에는 '교육부', 面에는 교육제가 있었다.³⁸⁾

인민공화국 수립이후 내각에는 敎育省이 설치되었으나, 공산당의 중앙부서에는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었으며 黨의 '宣傳煽動部'가 겸하고 있었다. 휴전 후 1954년부터 黨의 중앙부서에 '科學 및 學校敎育部'가 신설되어 교육을 전담하는 黨의 기구가 마련되었다.

1957년 8월 3일 '교육성'과 '문화성'이 통합하여 '敎育文化省'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1960년 4월 18일에는 고등교육만을 전담하는 '高等敎育省'이 신설되었다. 고등교육성이 신설된 것은 60년대 工場大學 등 고등교육기관의 대폭적인 증가에 대처하기 위함이었다.

1960년 12월 27일에는 교육문화성이 폐지되고 '普通敎育省'과 '文化省'으로 분리 독립되었다. 이로써 敎育行政은 '고등교육성'과 '보통교육성'이라는 두 체계가 성립하게 되었다.³⁹⁾ 이 당시의 교육행정조직의 구조는 <그림 5>와 같다. 보통교육성은 初等, 中等敎育 및 師範大學과 敎員大學을 관장하며 高等敎育省은 사범제 대학을 제외한 각급 대학을 관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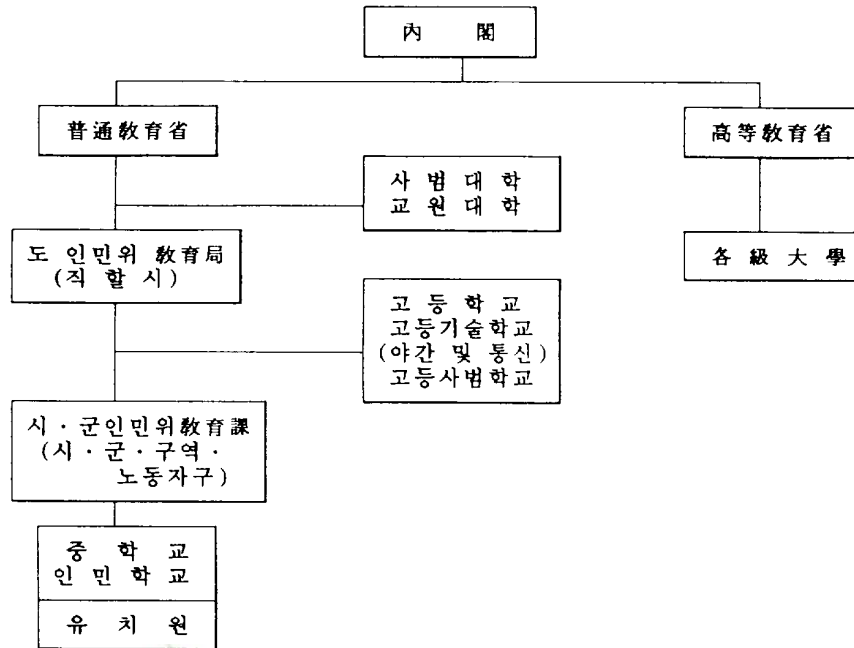


에서 낡은 사회의 잔재를 중국적으로 청산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교육이론을 철저히 구현할 것"을 다짐하고, 교육에 관하여 "새 세대들을 일반 기초지식과 함께 현대적 기술을 소유한 발전된 일군으로 육성한다"고 규정하였다.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는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새 인간' 육성과 '기술자, 전문가의 대부대, 나라의 인테리 대군을 마련할 것'이라 강조해 왔고, 1972년 북한사회주의 헌법(제39조)에서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그들의 교육이념으로 채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북한은 주체형의 새 인간을 강조하고 있음은 앞에서 지적한 바이다. 여기서 교육행정조직의 변천에 관한 논의는 상당부분을 송광호의 논문에 의지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송광호(1981), "남북한 교육행정조직에 관한 분석적 비교연구", 석사논문, 충남대 교육대학원.

38) 북한년감간행위원회편(1968), 『북한총람(1945~1968)』, 공산권문제연구소, p. 579.

39) 극동문제연구소(1974), 『북한전서(중권)』, p. 363.

〈그림 5〉 北韓의 教育 行政 組織(1972. 12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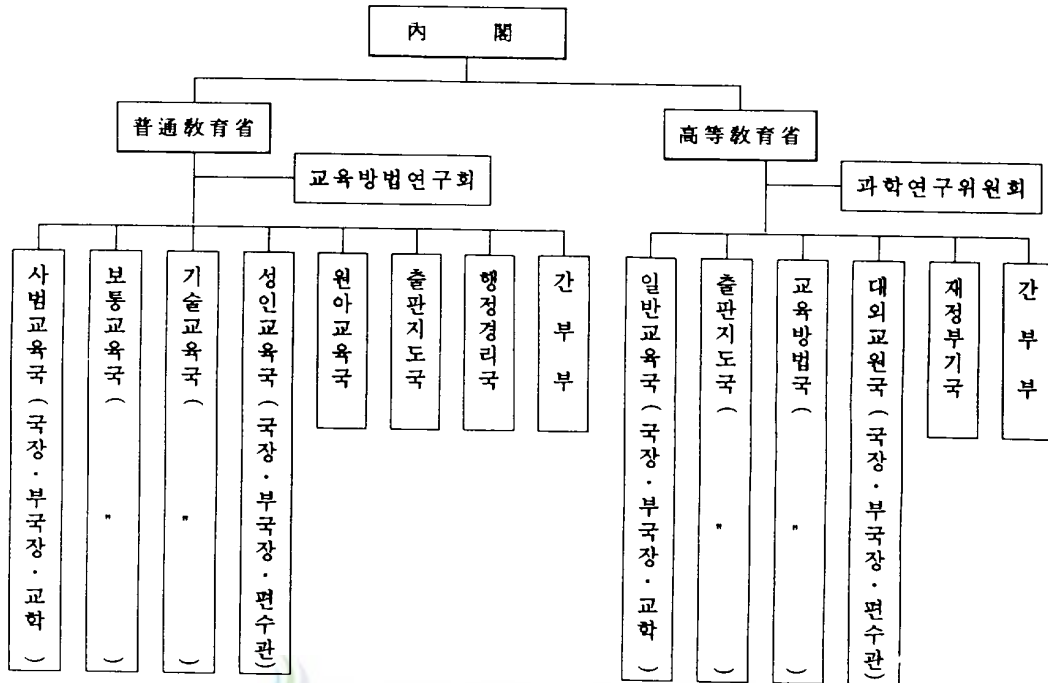
자료 : 국토통일원(1972), 『남북한 교육역량의 비교』, 국토통일원, P. 50.

단, 공산대학, 송도정치경제대학 등은 黨에서 직접 관장하였다.⁴⁰⁾

1972년 12월 新憲法에 의하여 내각이 정무원으로 개칭되면서 교육행정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성과 보통교육성을 통합하여 '教育部'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종전의 二元的 指導體系로 고정화된 제도를 급격히 변경함에 따라서 지휘계통상 혼선이 초래되었다. 內閣을 정무원으로 개편하기 전, 북한의 중앙교육행정조직의 구조는 〈그림 6〉과 같다. 普通教育省에는 사범교육국, 보통교육국, 기술교육국, 성인교육국, 원아교육국, 출판지도국, 행정경리국과 간부부가 있다. 高等

40) 『북한총람』, 전계서, p. 579.

〈그림 6〉 北韓의 教育 行政 組織(1973. 개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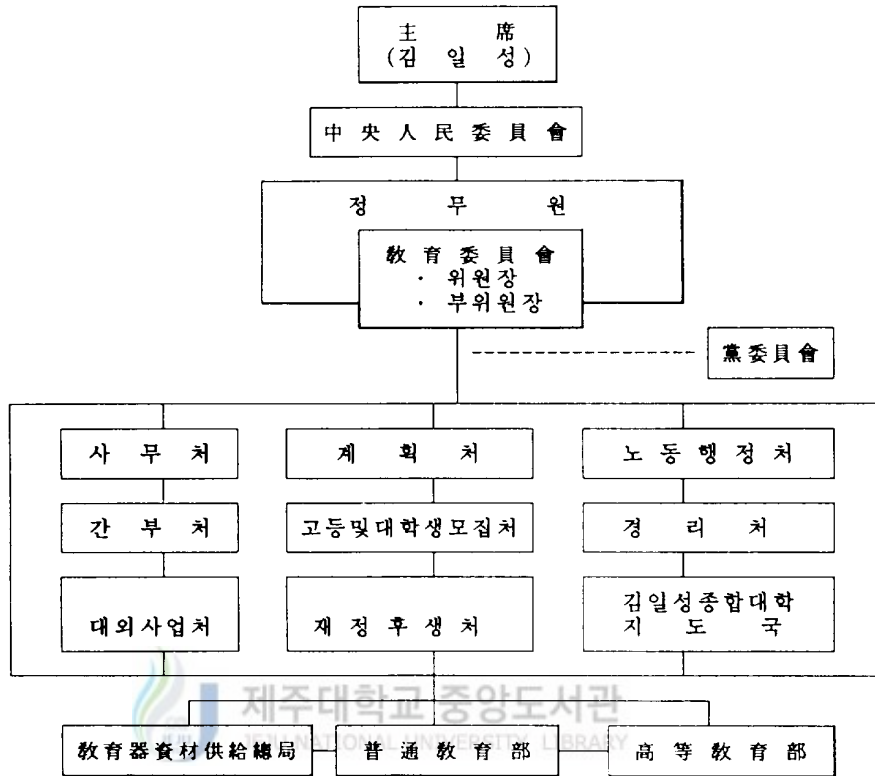
자료 : 국토통일원(1972), 『남북한 교육역량의 비교』, 국토통일원, p. 52.

教育省에는 일반교육국, 출판지도국, 교육방법국, 대외교원국, 재정부기국과 간부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성에는 상 1명, 부상이 3명 있다. 각 局에는 국장과 부국장이 있으며, 編修官 외에 敎學이 있는데, 이는 南韓의 獎學官에 해당된다.

1973년 정무원 부서에 南韓의 教育部에 해당하는 북한 교육행정의 중앙기관으로 “教育委員會”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고등교육부와 보통교육부를 부활시켜 해당업무를 각각 관장토록 하였다.⁴¹⁾ 〈그림 7〉

41) 극동문제연구소편(1980), 『북한전서(1945~1980)』, 극동문제연구소, p. 596.

〈그림 7〉 北韓의 中央 教育 行政 組織(1973. 개편후)



자료 : 박용현(1990), "교육제도와 행정" 김형찬, 『북한의 교육』, 을유문화사, P.126.

(2) 地方 教育 行政 組織

北韓의 지방교육행정조직은 중앙교육행정조직과는 달리 큰 변화를 겪지 않았다.

1948년 9월 '인민공화국' 선포 이전에는 道와 市·郡의 행정위원회 산하에 교육부, 面에는 教育係가 있어서 교육행정사무를 담당하였다.⁴²⁾ 그러나 1952년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에서 面의 廢止와 함께 교육계는 폐지되었다.

42) 『북한총람』, 전계서, p. 579.

1960년도 부터는 道の 敎育부를 敎育局으로 昇格시켜 규모를 확대하였다.⁴³⁾ 道 및 市·郡 행정위원회의 敎育局과 敎育部는 중앙의 보통敎育부의 지시를 받는 동시에 해당 행정위원회의 지시를 받는 2중의 종속적인 명령계통에 의존하고 있었다. 여기에 地方黨의 敎育부서의 명령도 받아야 하므로 3중 종속적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지방행정위원회가 지방행정경제지도위원회로 최근 다시 지방행정위원회 명칭이 바뀌었다.⁴⁴⁾ 敎育국과 敎育부의 명칭도 敎育처와 敎育과로 바뀌었다.⁴⁵⁾

2) 敎育委員會의 構造와 機能

(1) 敎育委員會의 組織 構造

敎育委員會는 정무원의 한 부서로서 북한의 中央敎育行政機關이다. 이는 기존의 敎育성이 73년에 잠시 敎育부로 바뀌었다가 지휘체계 혼선상 다시 기존체제로 돌리면서 敎育위원회로 수정 개편된 것이다.

<그림 8>에서 보는 바와같이 敎育委員會는 크게 普通敎育部和 高等敎育部の 2개의 부서와 그리고 敎育기자재공급총국으로 조직되어 있다.

敎育委員會 산하에는 사무처·계획처 등 8개 處와 김일성대학지도국을 두고 있다. 그리고 高等敎育부에는 대학지도처 등 5개 처와 도서배포소를 두고 있으며, 또한 규모가 그보다 작은 사업 기관의 성격을 지닌 敎育기자재공급총국에는 인쇄조직처 등 2개 處와 자재상사를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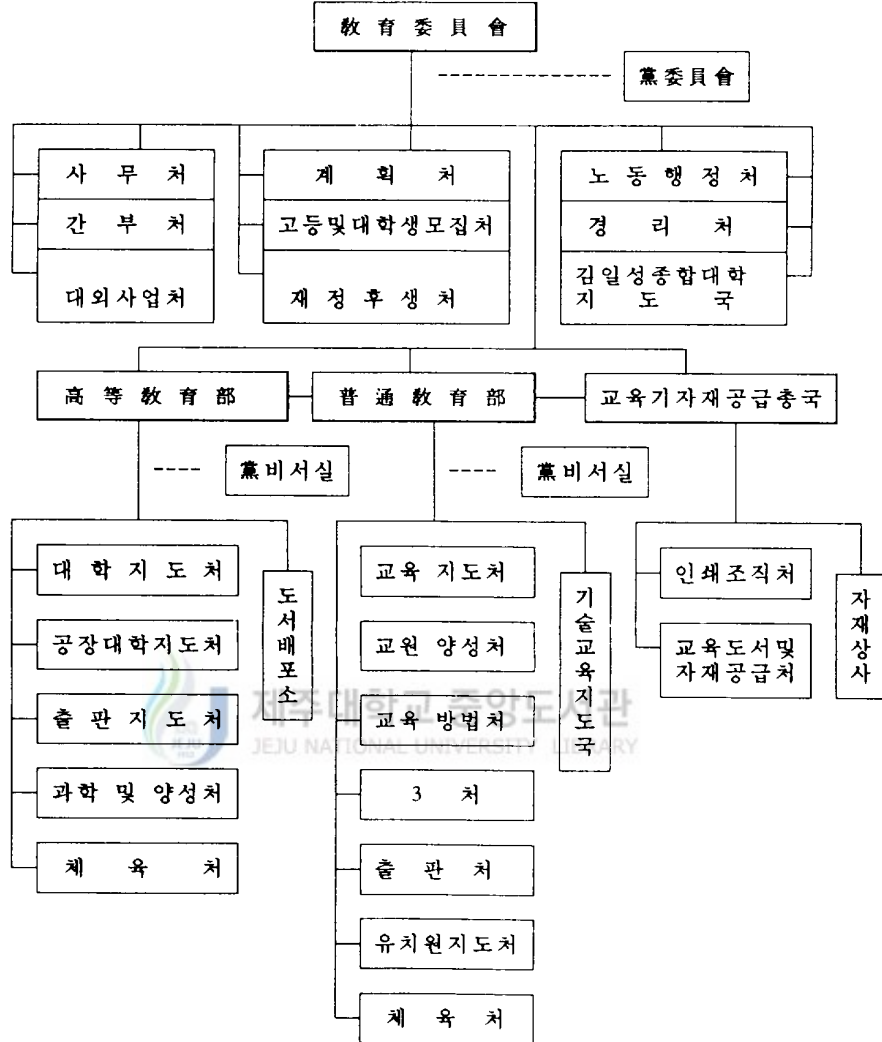
이와 같은 조직체제로 볼때 敎育委員會의 상층의 산하 조직은 주로 전문적인 서어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막료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외에 사회주의 敎育의 특성과

43) 『북한전서(증권)』, 전계서, p. 365.

44) 내외통신사(1982), 『내외통신』, 제269호(1982. 3. 5), 내외통신사, p. 113.

45) 장희동(1991), 전계논문, p. 36.

〈그림 8〉 北韓의 教育委員會 組織



자료 : 박완신(1988), 『북한행정론』, 회성출판사, P. 139.

北韓의 필요에 따른 조직도 함께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무처·경리처·계획처·재정후방처등의 조직은 고등교육과 보통교육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적인 계획과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⁶⁾ 그리고 勞動行政處는 北韓 社會主義가 階級史觀에 의해 특히 강조하고 있는 “인민의 노동자와 교육”을 관장하기 위한 조직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北韓 計劃經濟에 바탕하고 있어, 인력계획에 따라 필요한 학생을 양성해내기 위한 고등 및 대학생모집처를 두고 있다. 또한 김일성종합대학지도국을 두고 있는 것은 북한 사회의 지도급 인재를 길러내는 이 대학을 중시하여 특별히 중앙정부가 관할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비해 高等教育部와 普通教育部는 직접 대상학교와 교육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는 계선조직 형태를 위주로 하면서 몇몇 사업기관을 설치하고 있다. 고등교육부 산하에는 정규대학을 지도하는 대학지도처, 성인고등교육기관을 관할하는 공장대학지도처, 대학과학교육 및 대학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둔 과학 및 양성처, 출판지도처, 그리고 체육처를 두고 있으며, 사업기관인 도서배포소를 별도로 두고 있다. 그리고 普通教育部에는 교육지도처, 보통교육 교원을 양성하는 교원양성처, 교육방법처, 유치원지도처, 체육처 그리고 기술교육지도국을 두고 있다. 또한 사업기관 성격의 출판처도 설치하고 있다.

교육기자재공급총국은 사업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어 산하의 인쇄출판을 담당하는 인쇄조직처 그리고 도서와 자재를 공급하는 교육도서 및 자재공급처를 두고 있다. 그리고 상사 형태의 자재상사도 설치하고 있다.

社會主義教育의 特性인 黨의 指導를 관철하기 위해 중앙교육행정기관에도 관련조직을 두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는 黨委員會를 두고 있으며, 고등교육부와 보통교육부에도 각각 규모가 약간 작은 당비서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黨의 教育政策의 方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委員會’라는 명칭을 갖고 있다. 원래 위원회는 獨任制에 대응

46) 장희동(1991), 전계논문, pp. 38~39 참조.

되는 개념으로써 정책 결정을 3인 이상이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북한 교육위원회는 다소 색다르다. 北韓의 教育委員會는 정책 결정을 위한 '위원회'가 아니라 단순히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2) 教育委員會의 機能

교육위원회는 黨에서 결정한 教育政策을 執行·監督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미 논술했었다. 이와 같은 교육위원회는 출판·도서·교육을 관리하고 교육에 관한 예산 편성과 구체적 시책을 수립·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⁴⁷⁾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教育委員會는 2部 1局 8處 그리고 김일성종합대학지도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부서별 기능을 살펴보면, 普通教育部는 지방교육 행정기관을 指導·監督하며 교원대학과 사범대학의 관장을 통해 초·중등교원을 양성하며 사회주의체제에 부응하는 교육방법의 연구, 출판업무, 유치원의 지도, 초·중등의 체육교육진흥, 기술교육의 지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高等教育部는 사범대학을 제외한 정규대학을 指導하며, 성인고등교육기관의 指導·監督·대학과학교육 및 대학인재양성 계획 수립, 대학의 체육교육진흥 및 도서 배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教育委員會의 상층 산하기관으로 8개처와 김일성종합대학지도국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전문적인 서어비스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計劃處는 전반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幹部處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며, 대외사업처는 재외국민교육 및 홍보계획을 담당한다. 또한 재정후방처는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 보이며, 勞動行政處는 북한의 각급 학교에서 수행되는 노동 활동의 指導·監督기관으로 보여진다. 고등 및 대학생 모집처는 대학입학 희망자 접수 및 대학입학 자격고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며, 김일성綜合大學指導局은 김일성종합대학을 특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47) 최영표의(1988), "북한과 중국의 교육제도 비교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 221.

3) 地方教育行政 組織의 構造와 機能

(1) 地方教育行政組織의 構造 體系 및 設置 單位

北韓의 지방교육 행정체계로는 道(직할시) 단위에는 敎育處를, 市·郡 단위에서는 敎育課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地方行政經濟委員會에 예속되어 있다. 북한의 地方行政機關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되는데 의결기관으로 地方人民會議, 지도기관으로 地方人民委員會, 집행기관으로 地方行政經濟委員會 등이 있다.⁴⁸⁾ 따라서 敎育處와 敎育課는 집행기관인 지방행정경제위원회내에 있는 地方教育行政執行機關이다. 그런데 北韓에 지방의결기관으로 지방인민회의가 있다는 말은 자칫 北韓이 地方自治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地方人民會議은 중앙집권주의 원칙에 따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중앙기관의 대행기관에 불과하다.⁴⁹⁾

현재 北韓의 行政區域은 1特別市 2直轄市 9道 150郡이다.⁵⁰⁾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道(직할시) 行政經濟委員會는 12개가 존재하며, 市·郡 행정경제위원회는 168개가 존재한다.⁵¹⁾ 따라서 敎育處는 12개, 敎育課는 168개가 설치되어 있다. 북한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성체계는 <그림 9>와 같다.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北韓의 地方教育行政機關인 敎育處와 敎育課는 각각 상급 교육행정 기관인 보통敎育부와 敎育處의 指揮·統制를 받으면서 해당 당위원회 敎育부의 통제도 받는 2중적인 통제체제를 취하고 있다. 北韓에서 교육행정기관들이 黨이 統制를 받는다는 것은 「社會主義敎育에 관한 태세」에 명시되어 있음은 앞에서도 논술했다. 이처럼 黨의 統制가 행정체계를 통한 통제와 병행되면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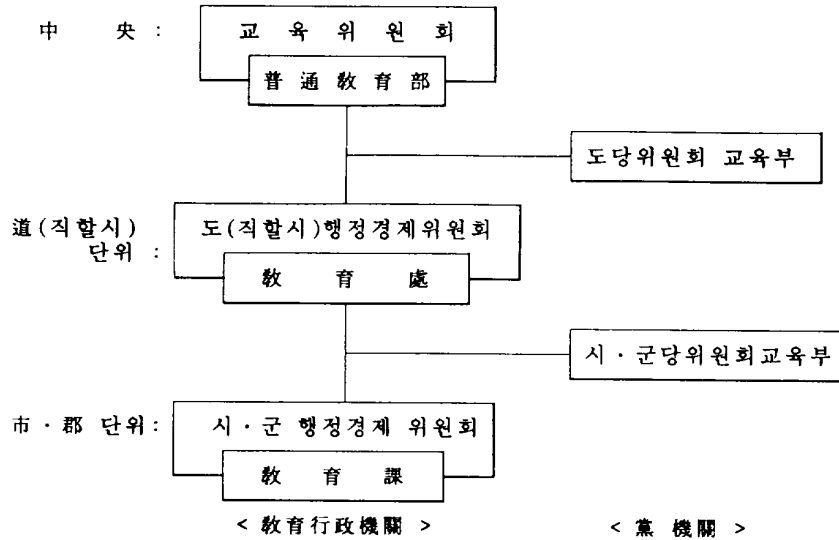
48) 박완신(1988), 전계서, pp.197~205.

49) 북한헌법 제10조 참조.

50) 연합뉴스(1991), 「연합년감 1991」, 연합뉴스사, p.663.

51) 연합뉴스(1991), 「연합통신 자료집」, p.40.

〈그림 9〉 北韓의 地方 教育 行政 機關의 構成 體系



자료 : 김동규(1988), 『사회주의교육학』, 도서출판 주류, p. 4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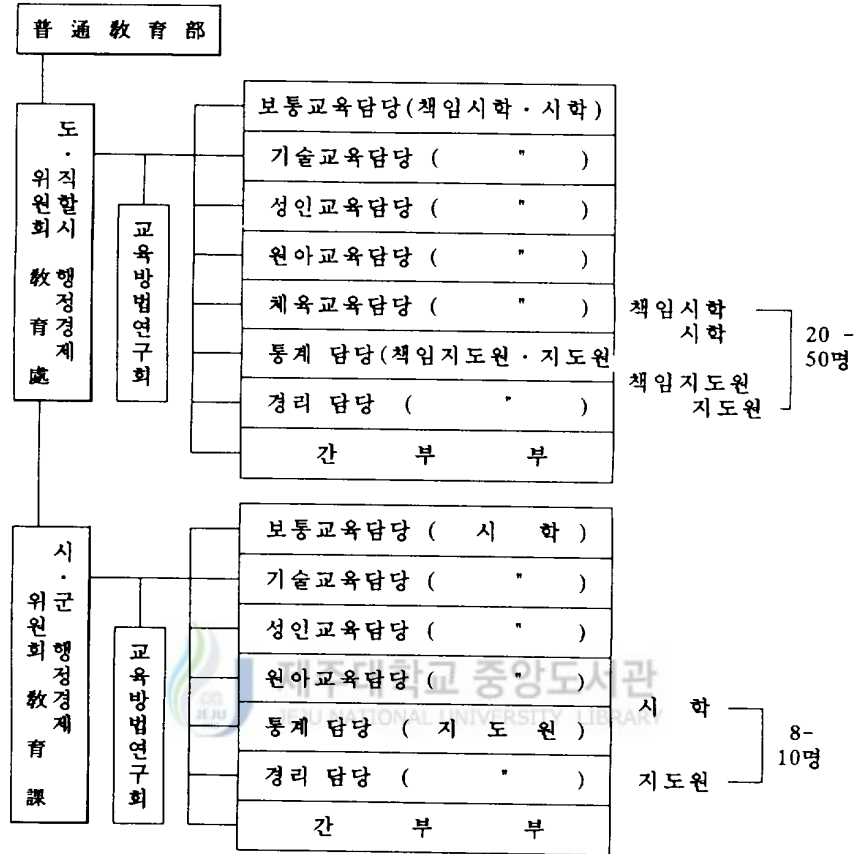
黨優位の 原則이 확고하다는 것은 북한교육행정의 권한 배분에 있어서의 일관된 특징이다.

(2) 地方教育行政組織의 構造와 機能

지방교육행정조직인 교육처와 교육과의 조직구조는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北韓의 敎育處와 敎育課의 조직은 비슷한데, 「擔當」이라는 명칭의 예하 부서를 두고 있다. 敎育處에는 보통교육담당·기술교육담당·성인교육담당·원아교육담당·체육교육담당·통계담당·경리담당의 7담당과 간부부를 두고 있다. 즉 7擔當 1部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담당에는 책임시학, 시학, 책임지도원, 지도원이 있으며 그 숫자는 20~25명이다.

〈그림 10〉 北韓의 地方教育行政組織 構成



자료 : 장희동(1991), "남북한 교육행정 조직의 비교 연구", 석사논문, 성균관대학교교육대학원, p. 57.

교육課는 교육처의 기구 중에 체육교육담당(제외된 6擔當 1部)로 구성되어 있는데 視學·指導員이 8~10명이 있다.⁵²⁾ 視學이라는 명칭은 일제시에 쓰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南韓의 獎學士에 해당된다. 또한 교육처와 교육과에는

52) 김태완의(1991), 「교육부분에 있어서의 남북한 교류협력 및 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 37.

각각 教育方法研究會를 두고 있는데 이는 北韓社會에서 教育방법을 특히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앙의 教育위원회내에서도 教育방법처를 두고 있는 것으로도 입증된다. 간부부는 인사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教育處는 教育위원회 普通教育부의 指導·監督을 받으며 教育課는 教育처의 指導·監督을 받는데, 教育처와 教育과는 관할지역의 教育을 관리하며 상부 教育행정기관의 정책을 구체화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教育처는 高等技術學校(야간 및 통신 포함), 직할시와 道에서 설립한 사대·의대·농대·교대를 직접 관장하며, 教育課는 教育처의 지시를 받아 高等中學校·인민학교·유치원을 관장하도록 되어있다.⁵³⁾

지금까지 북한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인 道(직할시)單位의 教育處와 市·郡單位의 教育課를 중심으로 그 구성체계 및 설치단위, 기구편성, 수행기능을 고찰해 보았는데 이를 요약해 보면⁵⁴⁾

- 북한의 지방교육행정조직으로는 도(직할시) 단위에는 教育처를 두고, 시·군단위에는 教育과를 설치하고 있는데 教育처와 教育과는 지방행정집행기관인 지방행정경제위원회의 한 부서로서 예속되어 있다.
- 북한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인 教育처와 教育과는 각각 상급교육행정기관인 普通教育부와 教育처의 지휘통제를 받는 동시에 해당 당위원회 教育부의 통제도 받는 3중적 통제체제를 취하고 있다.
- 教育처와 教育과의 조직은 서로 비슷한데, 각 부서에는 視學·指導員 있다.
- 教育행정기관별 학교 지휘체계를 보면 教育처는 高等技術學校(야간 및 통신학교 포함) 및 직할시와 道에서 설립한 사대·의대·농대·교대를 지휘·감독하며, 教育과는 教育처의 지시를 받아 高等中學校·인민학교·유치원을 지휘 감독한다.

53) 최영표 외(1988), 전거서, p. 223.

54) 장희동(1991), 전거논문, pp. 58~59.

4) 學校 行政 組織의 構造

北韓의 教育行政體系는 결과적으로 單位 學校로 연결되어 실행에 옮겨지게 되는데 북한은 學校 教育行政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도 교육행정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學校 教育行政을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다.

학교 교육행정에서는 교원들이 교수준비를 잘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교수준비에서 기본은 교수안을 잘만드는 것이다. 학교 교육행정은 교수들의 만든 교수안을 반드시 검열하여야 하며 집체토론을 거쳐 그것을 완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새로운 과목에 대한 교수사업을 할 때와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를 강의할 때에는 반드시 示範上學⁵⁵⁾이나 方式上學⁵⁶⁾을 조직하여야 한다.

*학교사업을 정규화·규범화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중요한 과업이다. 학교 사업을 정규화·규범화한다는 것은 교육사업을 과학적으로 맞물려진 교육학적 과정의 요구대로 진행하며 학교안에 혁명적인 제도와 규율을 세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학교행정조직의 구조를 도식화 하면 <그림 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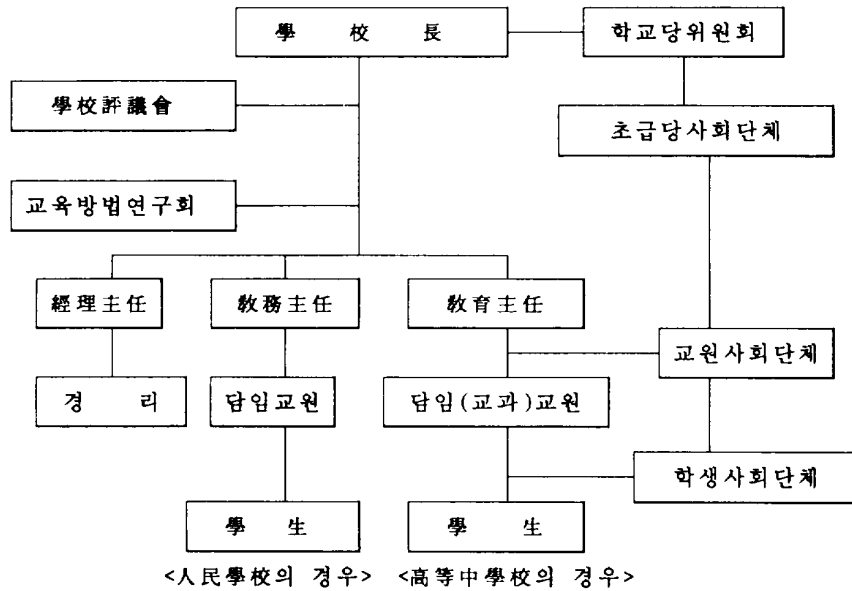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學校長 밑에 學校評議會, 教育方法研究會, 그리고 경리주임, 교무주임(교육주임) 등이 조직이 있다. 그리고 학교장과 평행선상에 學校 黨委員會가 있으며 그 밑에 초급당사회단체, 교원사회단체, 학생사회단체 등이 조직되어 있어 學校經營 전반에 대한 勞動黨의 指導·監督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學校組織내에 있는 學校評議會는 교육관계 법규상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

55) 북한 교육학에서 교수-학습이론으로 제시된 특유한 개념으로, 해당 제목의 모범 강의를 하여 참가한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하는것,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늘날의 당사업과 행정경제사업에서 이용하고 있다고 함.

56) 한 행정단위(집단)에서 모범을 창조해 놓고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일꾼들에게 그대로 따라서 하게 하는 일종의 모델학습법이다. 오늘날에는 정치, 행정 등 전반적인 정책수립과정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림 11〉 北韓의 學校 行政 組織



자료 : 엄홍철 외(1987),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p. 312.

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인데, 學校長은 매월 1회 이상, 그리고 학기 및 학년초·학기 말에 1회 이상 반드시 교직원과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회의를 소집, 관련된 소관업무를 보고토록 하고 群衆的인 決議를 얻도록 형식화 하고 있다.⁵⁷⁾

학교조직 내에서 중요한 것은 學校長과 黨 細胞와의 관계인데 학교장은 학교운영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결정하고 처리하기에 앞서 반드시 勞動黨에서 파견되어 나온 黨細胞, 그리고 지역사회단체 간부들과 협의를 거치도록 정례화 하고 있다.⁵⁸⁾

57) 국제안보연구소편(1986), 「한국의 안전보장과 평화통일」, 국제안보연구소, p. 239.

58) 최영표(1988), 전게서, p. 224.

IV. 内外環境의 變化와 北韓教育의 課題

1. 동아시아의 새 흐름

유럽이 하나의 經濟共同體를 구축하면서 세계경제의 축이 대서양이 아니냐는 논의가 있긴 하지만 21세기는 아시아-태평양 시대일 것이라는 견해가 더 우세하다. 지난 4반세기 동안 아시아 - 태평양지역은 世界經濟의 核心圈域으로 급부상했다. 우선 이 지역에는 놀라운 고도성장을 이룸으로써 세계의 新興工業國家들의 선두 주자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이 있으며 미국을 제치고 1990년 1인당 GNP 2만 4천 달러의 경제 거인이 된 일본 그리고 1980년대 이후 과감한 개혁-개방정책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9% 이상의 초고속 경제성장을 보여 주면서 21세기에는 세계 경제의 3위권에 육박하리라는 중국 등이 이 지역의 핵심 국가들이다. 여기에 풍부한 天然資源과 값싼 勞動力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자원이 보고로 알려진 시베리아 극동 지역을 갖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등이 포함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권은 그 力動性으로 인해 21世紀에는 世界經濟를 主導할 것이 확실하다.

2000년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총 GNP는 약 8조 달러에 가까울 것이고, 총 수출액은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력은 북미자유무역권 (NAFTA)이나 EC와 EFTA를 합친 유럽경제지역 (EEA) 과 거의 맞먹게 될 것이다.⁵⁹⁾ 물론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리적으로 그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少數 國家들간의 경제발전 단계와 경제구조가 매우 相異하여 EC나 NAFTA 보다 政治, 經濟的 利害의 得失關係가 미묘하게 부딪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

59) 오용석 (1992) "21세기 제주도의 경제적 위상", 제주도관광협의회 주최 「21세기 제주도의 역할」에 관한 세미나(92. 12. 9) 발표논문, p. 12.

제는 APEC와 PBEC 등이 다각적인 조정과 노력으로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더군다나 世界經濟의 地域化 흐름에 대응하는 것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地域經濟協力體制의 구축이고 보면, 이러한 조정과 노력은 잘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아시아-태평양지역은 規模의 經濟(Economy of Scale)와 範圍의 經濟(Economy of Scope)의 효율성과 상호경쟁과 보완관계의 적절한 조화로 상당히 빠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東北亞地域은 현재 1990년대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經濟成長을 主導할 중국, 일본의 중심 국가이다. 이를 “북동아力動經濟”(NADEs : Northeast Asia's Dynamic Economies)라고 불리우고 있다.

NADEs 가운데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中國은 현재 改革政策에 힘입어 비국영기업들에 의한 활발한 생산활동과 연안개방지역의 빠른 수출증가로 인해 제8차 5개년 계획 기간(1991~1995)의 예상 연평균 經濟成長率 6%를 초과하는 1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년 이내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의 네마리 용(龍)을 따라 잡게 될 것이다. 韓國은 지난, 제6차 5개년 계획 기간(1987~1991)에는 연평균 10%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냈고, 제7차 5개년 계획 기간(1992~1996)에 목표대로 지속적인 성장을 한다면 1996년 1인당 GNP가 1만 달러를 넘을 것이다. 일본은 선진국 가운데서 보기 드물게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여 왔으며, 최근의 경제침체와 엔高 현상에도 불구하고 4%의 실질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日本은 1996년에는 1인당 GNP가 세계에서 가장 큰 4만 2천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⁶⁰⁾

NADEs의 이러한 높은 경제성장은 이 지역의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증대되는 것이며, 이는 곧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

60) 상계논문, p. 14.

2) 社會主義 國家들의 改革 - 開放化

위에서 살펴 본 동아시아 지역국가들 사이에 理念의 障壁을 뛰어 넘는 경제적 의존성의 확대, 심화는 중국과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기존의 이념 固守政策에서 벗어나 資本主義 經濟體制를 적극 수용하는 정책의 전환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中國은 이미 78년부터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改革과 자본주의 경제와의 協力을 모색하는 開放政策을 추진하여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비록 중국은 89년에 천안문사태를 겪기도 했으나, 지난 '92년 10월 제14차 全國代表大會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까지의 改革-開放政策을 더욱 확대 심화시켜 社會主義 市場經濟政策을 펴 나갈 것이다.⁶¹⁾ 러시아는 소련의 사회주의적 정책에서 탈피하여 經濟的으로는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對外的으로는 개방화를 정책목표로 내걸고 있어,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만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 開放化를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中國과 러시아의 脫社會主義化 경향은 소련의 붕괴와 동구의 沒落의 原因이 국제경제의 파탄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나라의 경우, 政策의 기초는 국내경제발전에 두고 있기에 상당기간 시장경제의 수용과 자본주의 국가와의 交流와 協力강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冷戰의 時代가 가고 經濟의 時代가 展開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도 전환기에 처해 있다. 지역주의의 확산과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의 改革-開放政策으로 나타나는 아시아-태평양의 새 경제 질서에 北韓이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經濟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역류하려 할 때에는 北韓의 경제는 현재 상태로 보아, 成長은 커녕 오히려 깊은 沈滯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61) 중국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회의에서의 사회주의시장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문홍호 (1992), "중국지도부의 보혁갈등 전개추이와 14전대회", 통일원, 『통일연구논총』 제4권 4호(1992. 겨울), 통일원, pp. 121~131.

2. 北韓經濟의 沈滯와 體制 正統性的 危機

北韓은 지난 1984년 9월 合營法을 제정·공포한 이래 합영사업에 주력해왔다. 합영법 발표 이후 1990년말 현재까지의 합영기업 실적은 北韓 內 유치가 64건이고, 海外進出이 21건으로 총 87건이다. 지금까지의 合營事業의 특징은 대체로 조총련계 자본과의 합작(40여건)이 주를 이루고 있어 北韓이 바라는 서방국가들이 기술이나 자본의 유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로, 업종별로 보면 北韓은 工業部門에서의 合作에 최대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서서비스 분야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北韓이 對外開放化政策을 대표하는 合營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원인은 開放을 뒷받침할 경제체제에 대한 개혁을 實用主義路線에 입각하여 실시 하면서 대외 개방화 정책을 추진하는 中國과는 달리 北韓은 自力更生の 自立經濟政策과 構造에 대한 改革없이 選擇的, 部分的 開放化를 추진하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北韓은 왜 中國과 같은 經濟體制의 改革과 본격적인 對外開放化를 주저해 왔는가? 북한은 지도층은 40여년 동안 내외의 큰 도전없이 안정적으로 김일성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그 근본 요인은 閉鎖經濟, 住民統制, 主體思想 등의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체제개혁과 본격적인 개방화 조치는 이러한 메카니즘의 악화 내지는 무력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⁶²⁾

최근에 北韓 經濟實相을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러이사의 한 經濟研究所가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⁶³⁾

금년은 北韓의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이 종료되는 해이다. 이 기간동안 工

62) 고성준(1993), "내외환경의 변화와 북한 대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에 관한 세미나 발표논문(1993년 5월 14일)», p. 65.

63) 「조선일보」 1993년 3월 1일자.

業産額 1.9배, 농업생산액 1.4배, 국민소득 1.7배를 비롯, 「10대 전망목표」실현이 주요 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이 계획 목표들의 實現可能性은 희박하다. 7개년 계획 기간의 초기인 1987~1988년의 공업생산량 증가가 2~3%를 넘지 못했다. 1987년에는 제13차 평양축전을 치르느라 8천만 달러를 투입했다. 89년에는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경공업에 치중하므로써 중화학공업의 투자가 소홀해 졌다.

住民들의 勤勞意慾 喪失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GNP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89년의 흑심한 가뭄, 90년의 흉수로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됐다. 89년 GNP는 前年 對備 5% 감소했으며, 전력(-14%), 석탄(-8%), 비철금속(-14%), 석유제품(-11%), 시멘트(-8%), 화학비료(-5%)도 減少 生産을 가져 왔다. 90년 들어 수력발전의 확장에 힘입어 이러한 감소세가 주춤했다.

1991년 北韓當國은 이듬해의 김일성 80회 생일을 앞두고 그의 치적을 부각시키기 위해 석탄, 철강, 비철금속, 시멘트, 목재 등 주요 공업생산 품목의 증산에 박차를 가했으나 그 해 GNP는 약 3%(1인당 GNP는 -5~6%) 줄어 들었다. 구소련 및 동구 국가들로부터의 원유 공급과 원자재 적기 조달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北韓의 GNP의 45%는 공업생산이 차지하고 총 공업생산의 3분의 2가 중공업에 의존하고 있으나 가동률은 고작 40~50%에 머무는 실정이다.

90~92년 동안 석탄, 철광석, 비철광물의 생산 극대화가 당면과제로 떠올랐으나 석탄 및 철광석 생산량은 4천 9백 50만 톤으로 90년 들어 꽤 향상됐을 뿐이다. 91년의 총 발전량은 3백 20억KwH로 90년 수준을 넘지 못한다. (3차 7개년 계획 목표치는 1천억KwH)

北韓의 機械工業은 선진국의 50~60년대 수준으로써 약 400개의 관련기업소가 있다. 화학공업은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년간 10톤)가 있고, 사리원카리 비료연합기업소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다.

北韓은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91~92년 경공업 부문에서도 이렇

다하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다만 봉재산업은 외국과 합작으로 다소 활발한 편이다. 평양과 원산에는 수출용 의류제조업체가 가동 중이며, 여기에는 독일 및 일본의 기계가 들어가 있다.

北韓經濟에 있어 가장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에너지와 식량부족 현상이다. 에너지는 지난 90년도부터 소련의 그 동안의 방식과는 달리 원유공업에 있어 국제시장가격에 입각한 경화체제를 요구하면서 부터 가중되었다. 이로 인해 90년대에는 北韓의 원유 도입량은 정유능력 350만톤에 비해 약 100만톤이 부족한 255만톤을 도입했고, 91년에는 150만톤 이하로 줄었다. 그 결과 전력생산이 크게 감소했고, 공장 가동률도 40%로 떨어졌다. 리스카시 韓美聯合軍 總司令官의 證言에 의하면 연료부족은 온 도시의 전등이 어두어지고 전국적인 수송체제가 거의 정지됐다는 것이다. 하루에 전등 1개와 2시간의 TV시청에 소요되는 전력보다 더 많은 전기사용은 범죄로 간주하여 벌을 주는 법률을 제정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⁶⁴⁾ 식량생산의 경우를 보면 90년에는 480만톤을 생산했다. 이 양은 89년과 대비해 12%가 모자라는 양이다. 北韓이 실시하고 있는 최소 수준의 식량배급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91년에 160만톤의 식량을 외국에서 수입해야만 했고, 매일 1인당 곡식배급량도 감소되어 住民들의 營養失調과 심지어 饑餓의 징후가 있다는 것이다.⁶⁵⁾ 이러한 에너지와 식량의 부족현상은 심각한 상태에 빠져 92년 11월 이후 북한은 한국의 종합상사들에게 제3국산 곡물과 원유를 공급해 주면 북한산 아연피나 철강재 등으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北韓은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의 부족으로 원유와 곡물의 수입에 문제가 있으며, 中國마저도 경화결제를 요구하고 있어 이 문제는 획기적인 조치가 아니고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64) 원문은 주한미국공보원, 「시사평론」 제55호(1993년 6월), 주한미국공보원, pp.1~4참조.

65) Oleg Davydov,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와 대외정책”, 민족통일연구원(1993), 「북한체제의 변화: 현황과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p. 499.

分斷以後北韓社會에서 일어난 큰 變化의 하나가 人口構成의 變化이다. 분단 이후 출생한 사람이 전체인구의 82.5%를 차지하고 있으며 革命世代라고 불리는 분단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17.5%에 불과하다. 이는 북한 인구의 대부분이 이미 혁명 2세대라는 것을 의미한다.⁶⁶⁾

革命 2世代는 일반적으로 일제의 지배, 분단의 고통, 한국전쟁, 절대빈곤을 체험한 革命 1世代에 비해 思想性과 黨性 그리고 革命性이 투철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⁶⁷⁾ 특히 革命 2世代는 혁명세대에 비해 경제문제에 대해서 인내심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소련 및 동구를 유학중인 북한 학생들이 북한과 비교해 볼 때 소련 및 동구권의 높은 생활수준, 풍부한 물자, 자유로운 생활 등을 목격하고, 북한에서의 인민들의 삶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이들은 유학생할 중 남한 인민들의 삶의 북한의 선전과는 달리 북한 인민들의 삶보다 운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깨달음은 유학생들로 하여금 北韓體制의 優越性에 대해 회의론을 갖게 되는 것이다.⁶⁸⁾

또한 閉鎖的인 北韓社會도 국제화의 조류 속에서 차츰 부분적이거나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가 유입되면서 體制 不安 내지 動謠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中國의 현 상황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의 왕래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친지방문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北韓의 현실에 대한 비판과 회의가 싹

66) 고성준(1993), 전제논문, p. 67.

67) 『노동신문』, 91년 6월 5일자는 이 현상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학생 등 새 세대 중에는 혁명적 시련을 겪지 못하고 당의 품속에서 행복만을 알며 자라난 사람들이 적지 않으며 서구의 부르조아 문물에 물들기 쉽다.”

서재진(1992), “김일성 이후의 정책 방향”, 민족통일연구원 주최 개원 1주년기념 국내학술회의(1992. 4) 발표논문, pp. 127~129 참조.

68) 북한의 잠재적 엘리트라고 볼 수 있는 유학생들이 이러한 의구심과 불만이 북한체제에 대한 개혁의식으로 이어지지 않고, 망명을 택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김일성체제하에서는 개혁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를 갖기 어렵다는 판단이 앞서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사편(1991), 『북한, 그 충격과 실상』, 조선일보사, p. 161참조.

트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 인민들이 70년대 까지는 북한보다 훨씬 낮은 생활수준에 머물렀으나, 改革-開放政策이 추진되면서 북한 인민들보다 훨씬 잘 산다는 사실이 북한 인민들에게는 비밀아닌 비밀이 되어있다.

이렇듯 中國은 물론이고 험벗고 굶주리던 南韓과의 경제적 격차에 대한 놀라움은 經濟沈滯로 인해 과거에 비해 더욱더 열악해지고 있는 생활수준에 대한 불만과 맞물려 革命 2世代에 의한 북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북한사회에서 싹트고 있는 것이다.

3. 「우리식 社會主義」의 展開

北韓은 内外環境의 變化에 개혁을 통해 적응하기 보다는 지금까지의 社會主義를 固守 發展시켜 나가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우리식 대로 살자'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⁶⁹⁾

“복잡하게 조성되는 혁명세대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여 혁명과 건설을 사소한 편향과 우여곡절도 없이 힘차게 추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식으로 살아갈 데 대한 당의 革命的 방침을 빛나게 관철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혁명정세가 아무리 복잡하게 조성된다 하더라도 로동계급의 革命的 原則과 입장, 主體的 입장을 견결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北韓의 '우리식 대로 살자'는 것을 간결하게 표현하면 사회주의 원리 원칙을 철저히 고수해 나가겠다는 것이며, 모든 것을 主體思想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최근 김정일은 93년 3월 4일 黨機關誌 「근로자」 ('93. 3월호)에 게재된 “사회주의에 대한 훼손은 허용될 수 없다.”라는 장문의 담화에서도 사회주의 고수를 역설하고 있다. 김정일은 이 담화에서 東歐社會主義의 崩壞는 내부의 사상적 동요가 결정적

69) 『근로자』 1989년 10월호, p. 19. 고성준, 전계논문, p. 69재인용.

이므로 북한사회주의의 체제를 고수함에 있어 정신무장의 신념화, 도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主體思想 教養과 首領-黨-人民의 일체감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배신자들의 온갖 꾀방을 짓부시고 사회주의 위업을 옹호 고수하기 위해서는 사회생활의 집단주의적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집단주의가 가장 철저히 구현될 사회이다.”라고 못박고 있다.⁷⁰⁾

북한은 1992년 2월에는 憲法改定을 통해 김정일을 軍權掌握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곧 국방위원회 위상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헌법은 군 통수권을 국가주석과는 별도로 기구인 국방위원회로 이양시켰다. 북한의 舊憲法에 있던 ‘주석은 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장이되며 국가의 일체적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主席外에도 최고사령관이 될 수 있게 하므로써 김정일의 군사령관 취임의 위헌 시비를 제거하였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헌법 수정은 김정일의 국가주석직을 말지 않고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자 국방위원장 자격으로 국방분야에 대한 장악을 보다 확고하게 하는데 뜻이 있는 것이다. 국방위원회를 종전 중앙위원회 산하 부문별 위원회의 성격에서 주석 다음의 기관으로 격상시킴으로써 김정일의 軍部掌握을 통한 後繼體系의 공고화를 구축하였다.⁷¹⁾ 이러한 모든 것은 김정일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어 지난 4월 9일 열린 最高人民會議 제9기 5차 회의는 마침내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이로써 김정일은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3대 지주인 黨-政-軍의 통수권 중 軍權을 장악한 것이다.

김정일은 1992년 1월 3일 발표한 「社會主義 建設의 歷史的 敎訓과 우리 黨의 總路線」이라는 담화에서 사회주의는 결코 소유에서의 다양화와 경제의 시장화 등과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곧 北韓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生産手段의

70) 원문은 통일원(1993), 「북한동향」 제141호(1993년 3월), pp. 87~107참조.

71) 고성준(1993), 전계논문, pp. 70~71.

社會化, 黨委員會 중심의 經濟管理, 計劃經濟의 실시라는 원칙을 고수 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아무리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해도 사회주의 경제원칙을 견지하면서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제한적인 개방정책을 채택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지난 合營法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정책으로 「自由貿易地帶」의 신설이다.

91년 7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유엔개발계획 국제회의에서 북한은 「나진·선봉 經濟貿易地帶 開發構想案」을 표명했고 12월에는 나진, 선봉지역 621km를 「自由貿易地帶」로 지정했다.⁷²⁾ 北韓은 이미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외국의 투자유치를 위해 이미 외국인 기업법, 기업소득세 법안의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외국인 출입국 등 모든 관련 법규들을 1993년 상반기까지는 정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1년 나진, 선봉지역을 중국의 경제특구와 같은 '自由貿易地帶'로 지정한 것은 北韓의 經濟開放政策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開放은 국내적으로 계획경제체제를 남겨둔채 그 일부지역에 외국자본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자본형성과 외화획득을 실현시켜 그 위에 서방측 시장 매카니즘의 국내 침투는 정책당국이 주변에서 통제하는 것이기에 지금까지의 개방정책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北韓은 憲法改定을 통해서 經濟難 打開를 위한 대외개방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제16조), 외국의 법인과 개인과의 기업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 (제37조)고 하여 對外經濟開放政策의 法的根據를 명시하고 있다.⁷³⁾ 또한 92년 10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外國人 投資法」, 「外國人 企業法」, 「合作法」등을 채택 발표했다.

72) 이상만(1993),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과제", 통일원 「통일문제연구」 제5권 1호 (1993년 봄), 통일원, pp.106~107.

73) 장명봉(1993), "북한헌법개정 내용과 특징", 대륙연구소, 「북한연구」 제4권 1호 (1993년 봄), 대륙연구소, pp.116~118.

이는 合營法 제정 이후 야기된 문제점을 법적인 제도의 보완으로 제한적이거나 開放政策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外國人 企業法은 외국인의 단독투자기업은 자유무역지대에서만 가능하고, 종업원의 채용은 北韓의 勞動機關과의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한된 지역을 개방하나 외국기업에 고용하는 근로자들을 철저히 北韓當國이 統制하여, 외국기업의 투자와 함께 붙어닥칠지 모르는 開放의 부작용을 가능한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北韓은 내외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體制改革을 통해 대응한다기 보다는 지금까지 견지해 온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구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北韓의 改定 憲法은 제80조에서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하였다.”⁷⁴⁾ 北韓은 김정일의 논문과 담화를 통해 소련과 동구사회주의의 변혁이 인민들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무장이 해이되었기 때문에 야기된 것으로 보고있다.⁷⁵⁾ 이것이 결코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자본주의의 반동성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⁷⁶⁾ 따라서 일부 국가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등장한 것은 일시적 현상이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 승리가 역사의 필연적인 법칙이라고 강조함과 동시에 부르조아 思想의 침투를 철저히 차단하고 보다 정교화된 主體思想에 기초하여 ‘우리식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모든 교육의 기본 테마가 되어 있다.⁷⁷⁾ 이렇듯 北韓에서 主

74) 장명봉(1993), 전계논문, p. 111.

75)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고성준(1993), 전계논문, pp. 68~69. 참조.

76) 이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사회주의적 원칙을 옳게 구현하지 못하면 좌절을 면치 못하게 되고 자본주의 복귀의 길로 나아가면 인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이 들쭉우게 된다는 것은 역사적 현실이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며 이 자체가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반증하여 주는 것입니다」라는 글에서 알 수 있다. 『로동신문』 1992년 1월 1일자. 고성준, “전환기의 북한과 우리식 사회주의” 통일원(1993), 『북한학강좌교재 및 교수모듈연구』, 통일원, p. 194 재인용.

77) 장명봉(1993), 전계논문, p. 111~1112.

體思想에 의한 住民의 思想 統一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주의권의 대변혁에 따른 <體制維持戰略>에 입각한 住民思想武裝의 일환인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침체된 經濟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견지하면서도 과감한 대외경제 개방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 改正 憲法은 북한이 중국식의 經濟開放政策을 模倣하여 법적 제도적 여건 개선을 통한 先進資本과 技術의 도입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北韓의 대외경제개발정책에 따른 프로젝트들은 선봉, 나진 자유무역지대의 건설과 유엔개발기구 주관의 두만강 유역 개발사업이다. 北韓이 1991년 나진, 선봉지역을 '자유무역지대' 즉 '經濟特區'로 지정한 것은 北韓의 經濟開放政策이 中國의 길을 걷게 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經濟特區는 국내적으로는 계획경제체제를 남겨 둔채 그 일부분에 外國資本을 導入하는 것으로서, 資本形成과 外貨획득을 실현시켜 그 위에 西方측 시장 매카니즘의 국내침투는 정책당국이 주변에서 통제하는 일종의 완충지대라 할 것이다. 北韓의 經濟特區設置를 발표하여 두만강 유역개발을 위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분위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개방정책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또한 北韓은 지금까지 사회주의권에 치중했던 대외교역을 資本主義圈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외정책의 전환을 추진하고 최우선의 파트너를 일본으로 상정하고 있다.⁷⁸⁾

이에 더하여 北韓은 헌법개정을 통해서 경제난 타개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대내적으로는 技術革命이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기본 고리라고 보고 科學, 技術發展問題를 최우선 과업으로 설정하였다(제27~28조). 그리고 국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衣·食·住의 모든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는 人民 福祉向上에 관한 條項을 新設하였다(제25조).

이러한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과 경제건설 촉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은 主體思想教育의 強化라는 사상교육보다 오히려 실용적인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중국의 경우 思想解放과 事實求是에 입각하여 實用的이고도 실제적

78) 고성준(1993), 전제논문, p. 212.

인 학습을 강조하고 외부로부터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부터의 지식의 도입을 강조했다.⁷⁹⁾ 중국은 경제개방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개발은 이데올로기 교육 보다는 실용주의교육을 통해 이루어 왔다. 따라서 北韓의 敎育理念과 政策에 있어서 當面하는 딜레마는 서로 대립되는 兩大 目標-체제고수를 위한 사상교육과 경제건설 개방을 위한 실용주의 교육-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主體思想敎育을 강화하는 것은, 經濟開放과 經濟建設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개발은 희생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반대로 실용주의교육의 강조는 필연적으로 中國의 경우 처럼 思想解放의 문제가 대두될 수 밖에 없고, 이것은 거의 신앙화된 主體思想에 대한 挑戰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北韓은 당분간 體制固守를 우선시 하기에 思想敎養과 대중적 정치적 동원을 계속하는 길을 택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경우 經濟開放의 성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展望된다. 따라서 北韓도 中國의 改革을 敎育에 점진적으로 受容해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79) 중국은 休養—政策으로 사상을 대표적으로 해방시켜 정치적 동원에 지친 인민을 휴식시켜 활력을 회복시켰다.

서재진(1992), “김일성 이후의 정책 방향”, 민족통일연구원 개원 1주년 세미나 (1992. 4. 10) 발표논문, pp. 151~152.

V. 結 論 : 評 價 및 展 望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있어서 敎育의 一般目標은 主體思想으로 철저히 내면화된 革命的 人間을 계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政治敎育은 敎育의 기본으로 되어 있다. 이 점에 있어 敎育을 기본적으로 비정치적(정치중립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南韓의 敎育觀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한 敎育강령, 학교敎育과 敎育학의 경전이라 부르는 「社會主義敎育에 관한 테제」에서 “政治思想敎育을 잘하는 기초 위에서만 과학기술 敎育과 체육敎育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볼 때 북한이 敎育에서 사상敎育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는 敎育을 통해서 「共產主義的 새 人間」 즉, 공산주의 이념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내려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인간육성을 敎育에서 강조하고 있다.

한편 공산국가들의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社會主義의 이념에 투철한 국가건설목표에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국가건설목표의 갈등 즉, 이념과 전문지식·기술간의 갈등이 북한에도 나타나고 있으나 북한은 일관성 있게 敎育을 국민의 思想 敎養의 수단으로 간주해 오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는 理念·思想敎育이 專門知識·技術敎育보다 우선시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북한의 학교에서는 이념(주체사상) 敎育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당국이 敎育의 이념에서 강조되는 것은 ① 전 주민의 주체사상에로의 교화 ② 전 주민의 당과 국가기관에 대한 철저한 복종 ③ 주체사상에 의한 배타주의와 특히 南韓과 美國에 대한 호전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다.⁸⁰⁾ 그러나 이러한 명시된 목표

80) 유세희(1984),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의 의식형성 비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북한통치 이데올로기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 159~161.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김일성 개인에 대한 偶像化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도 全 住民의 “黨과 국가에 대한 철저한 服從과 主體思想으로의 武裝”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보다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강조는 本「테제」에 관한 해설과 선전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이「테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이며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친히 작성하신 조선로동당의 교육정책을 집대성한 문헌으로서 당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김일성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본문의 내용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黨의 공식 결정서에도 이 문건을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主體思想을 구현한 主體의 教育綱領”이라고 미화하고 있으며, 이「테제」를 발표한 날을 〈교육절〉로 제정하여 기념하고 있다.⁸¹⁾ 북한의 初·中等學校 教科書도 이를 뒷받침 하듯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인격과 폭넓은 知識을 제공하기 보다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忠誠을 강조하는 주제로 구성되어 강력한 思想教育의 도구인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北韓教育의 目標은 사회주의체제의 건설이지만 실제로는 김일성 체제의 확립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교육이념과 목적을 구현하고 주요 교육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教育行政體系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구와 그 운영과정, 각종의 조직구조와 기능등에 대해 검토해 보면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北韓의 教育行政體系는 정책을 수립하고 指導·監督·評價를 담당하는 黨과 黨의 政策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 대별되는 2원적 체제를 갖거니와 양자간의 관계를 일방적이면서 유기적인 관계로 맺어지고 있다. 北韓의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黨의 優位性은 교육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黨이 모든 교육정책을 일방적으로 수립함은 물론 그 집행까지도 적극 관여하여 지도·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教育行政體系는 철저한 중앙집권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81) 유세희(1984), 상계서, p. 161.

둘째, 北韓의 教育行政機關으로는 중앙에 교육위원회, 도(직할시) 단위에는 교육처, 시·군 단위에는 교육과가 있는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중앙교육행정기관인 교육위원회도 소위 '위원회'라고 명칭되고 있지만 정책 결정권은 없으며 당의 정책수행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셋째, 北韓은 學校行政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학교행정에 대한 지도와 감독은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다. 學校는 당으로부터, 상급행정기관으로부터, 심지어 지역단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도 통제를 받는 2중 3중의 간섭을 받으면서 관리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體制革命을 要求하는 内外環境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경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經濟開放을 확대하고 經濟促進을 중시 여기는 전술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北韓의 「우리식 사회주의」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은 북한교육에 상당한 딜레마를 안겨주게 된다. 즉 北韓이 當面하고 있는 두가지의 課題-사회주의체제의 고수와 대외경제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를 教育이 어떻게 조하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경제발전을 위한 고급 산업인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實用主義的인 教育과 외부세계로부터의 先進知識 導入을 강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대변혁에 대응해서는 사회주의체제 고수를 위한 政治教育을 오히려 강화할 수 밖에 없는 난처한 입장에 북한교육은 처해 있다.

向後 北韓教育의 方向을 展望해 보건데, 단기적으로는 북한 교육이 體制固守라는 정치적 성격을 더욱 띠는 것이다. 그것은 냉전질서의 와해와 소련 및 동구의 대변혁으로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교육은 체제의 내부적 결속과 김일성-김정일체제의 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폐쇄적 사회주의체제를 토대로 한 현재의 교육 이념과 교육 정책 그리고 교과 내용은 북한의 대외경제개방화와 서로 배치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

의 교육은 개방화의 흐름을 수용할 수 밖에 없고, 그 내용은 思想教育을 堅持하면서도 實用的이며 國際化 指向的으로 나가는 길 밖에 없을 것으로 豫想된다.



參 考 文 獻

1. 북한 자료

- 김일성(1977), 『社會主義 敎育에 관한 테제』,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1977), 『社會主義 敎育學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1984), 『敎育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준건(1973), 『대학사업에 대한 敎育행정기관의 지도리론과 방법』, 敎育도서출판사.
- 리영복(1984),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敎育』, 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1973), 『朝鮮文化語辭典』, 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1975), 『主體思想에 기초한 社會主義 敎育理論』, 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1985), 『人間改造 理論』(위대한 주체사상 총서6), 사회과학출판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社會主義 憲法』, (1992. 4. 9 개정헌법).
- 敎育도서출판사(1975), 『敎育學(상)』, 敎育도서출판사.
- 敎育도서출판사(1975), 『社會主義 敎育學』, 敎育도서출판사.
- 조선중앙통신사(1980, 1988), 『朝鮮中央年鑑』, 조선중앙통신사.
- 조선로동당규약(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채택)
- 『로동신문』, (1991. 6. 5)

2. 한국문헌

〈單行本〉

- 高麗大平和研究所편(1990), 『北韓敎育의 照明』, 법문사.

- 國土統一院 統一研修院(1989), 「民主統一論」,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 국토통일원(1972), 「남북한 교육역량의 비교」, 국토통일원.
- 統一院(1992), 「'92 北韓概要」, 통일원.
- 극동문제연구소(1974), 「北韓全書(중권)」, 극동문제연구소.
- 극동문제연구소(1980), 「北韓全書(1945~1980)」, 극동문제연구소.
- 극동문제연구소(1983), 「北韓總覽」, 극동문제연구소.
- 국제안보연구소 편(1986), 「한국의 안전보장과 평화통일」, 국제안보연구소.
- 교육부(1991), 「오늘의 북한」, 교육부.
- 金炯燦(1988), 「북한 교육발달사」, 한백사.
- 金東圭(1988), 「社會主義 教育學」, 도서출판 주류.
- 金東圭(1990), 「北韓의 教育學」, 문맥사.
- 김창순편(1977), 「북한 교육론」, 북한문제연구소.
- 金炯燦편(1990), 「北韓의 教育」, 을유문화사.
- 내외통신사(1982), 「내외통신(제269호)」, 내외통신사.
- 朴完信(1988), 「北韓行政論」, 회성출판사.
- 북한연감간행위원회편(1968), 「북한총람(1945~1968)」, 공산권문제연구소.
- 聯合通信(1991), 「聯合年鑑(1991)」, 연합통신.
- 연합통신사(1991), 「연합통신 자료집」, 연합통신사.
- 廉弘喆 외(1987), 「北韓社會의 構造와 變化」,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統一研修院(1992), 「民主統一論(북한실패)」, 통일연수원
- 國際安保研究所(1986), 「韓國의 安全保障과 平和統一」, 국제안보연구소.
- 주한미국공보원(1991), 「北韓, 그 衝擊과 實相」, 조선일보사.
- 統一院(1993), 「北韓動向」 제141호(1993년 3월호), 통일원.

〈學位 論文〉

- 박용하(1988), 「北韓 行政體系의 特徵과 機能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동국

대학교행정대학원.

- 서익수(1978), “북한의 학교 교육행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광호(1981), 南北韓 教育行政組織에 관한 分析的 比較 研究”,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교육대학원.
- 송영찬(1990), “南北韓 教育行政制度 比較 研究”,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宋終淑(1990), “北韓의 教育政策과 教育行政의 思想的 背景과 실상”,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교육대학원.
- 장희동(1991), “남북한 교육행정조직의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교육대학원.
- 金良洙(1983), “南北韓 政治思想教育의 實態 分析”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교육대학원

〈一般論文〉

- 김경웅(1990), “政治思想教育의 理論과 構造的 特徵” 『北韓』, 1990년 5월호, 북한연구소.
- 김경웅(1992), “北韓의 教育制度”, 교육부편, 『教育月報』, 1992년 3월호.
- 김완석(1993), “북한의 정책 결정 그 이론과 실제”, 『北韓研究』, 1993년 봄, 대륙연구소.
- 이상만(1993), “南北韓 經濟交流協力の 課題”, 통일원, 『통일문제연구』 제5권 1호(1993년 봄), 통일원.
- 장명봉(1993), “北韓 憲法改正의 內容과 特徵”, 대륙연구소, 『북한연구』 제4권 1호(1993년 봄), 대륙연구소.
- 김태완 외(1991), “교육부분에 있어서의 남북한 교육협력 및 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민족통일연구원(1992), “북한주민의 인성연구”, 민족통일연구원.
- 박용현(1990), “教育制度와 行政” 김형찬편, 『北韓의 教育』, 을유문화사.
- 朴文甲(1990), “北韓 教育體系와 政治社會”, 金甲喆 외, 『北韓學 概論』, 문우사.
- 이종욱(1990), “북한의 교육정책과 행정 및 고등교육” 고려대평화연구소편, 『北韓教育의 照明』, 법문사.
- 조점환(1991), “北韓의 學制와 教育內容”, 『北韓研究』, 1991년 여름호, 대륙연구소.
- 崔榮杓(1988), “北韓과 中國의 教育制度 比較 研究”, 한국교육개발원.
- 오용석(1992), “21세기 제주도의 경제적 위상”, 제주도관광협의회 주최, 『21세기 제주도의 역할』에 관한 세미나(1992. 12. 9)
- 문홍오(1992), “중국 지도부의 보혁갈등 전개 추이와 14전대회”, 통일원, 『통일 연구논총』 제4권 제4호(1992년 겨울), 통일원.
- 高性俊(1993), “內外環境의 變化와 北韓對應”, 제주대학교동아시아연구소, 『國際環境의 變化와 한반도 統一』에 관한 세미나, (1993. 5. 14)
- 高性俊(1993), “轉換期의 북한과 우리식 社會主義”, 통일원, 『북한학 강좌 교재 및 교수모듬연구』, 통일원.
- 統一院(1992), “북한 교과서 분석”, 『통일속보』, 제92-9호, 통일원.
- Oleg Davydov,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와 대외정책”, 민족통일연구원(1993), 『북한체제의 변화: 현상과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 서재진(1992), “김일성 이후의 정책방향”, 민족통일연구원 주최 개원 1주년기념 국내학술회의(1992. 4).
- 유세희(1984),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의 의식형성 비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북한통치 이데올로기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Summary〉

A Study on the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in North Korea

Lee Gyung Yoon

National Eth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 Seong Joon

This thesis aims at analyzing the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education and predicting the future of North Korean education. The Goal of education in North Korean socialist system is to cultivate Juche-oriented revolutionary people. The political education is the essence of education in North Korea. Therefore the ideological education takes precedence of technical education in North Korea. But more important, the North Korean education contributes to idolize Kim Il-sung.

The content Analysis of the text-books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reveals that they are strong instrument of ideological education to strengthen the loyalty of Kim Il-sung-Kim Jong-il. In analyzing the system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north Korea, we can find the same conclusion. The party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3.

dominates all aspects of educational administrative system, which is the centralism.

Even though, China, the ally of North Korea has been making reform and open-door policy in recent years, north Korea decides to preserve the line of socialism in spite of economic difficulty. But only the partial opendoor policy will be permitted to rediscover the economy.

North Korean education is now facing the dilemma whether it is to persist its Juche-oriented education on to follow china's pragmatic tendency. For some time, north korean education will stress the Ideological education to protect socialist system. But in the long run, the North Korean education will be changed toward the pragmatism and technical orientation like China.

